

---

# 2021년 외국인노동자 국내 취업활동 실태조사 분석

---

## I. 개요

- 조사목적 : 「외국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센터에 내방하는 외국인노동자(E-9, H-2)
- 조사기간 : 2021. 08. 22. ~ 09. 30.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국어 통역원 동석 통역
- 응답자 국적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중국 등 6개국
- 분석 설문지 : 300부
- 설문조사 내용 : 응답자 일반적 특성, 취업활동, 센터 이용 및 상담 등 45문항

## II. 실태조사 분석요약

###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300명 중에 229명(76.3%)이 남성, 여성은 71명(23.6%)이 차지하고, 연령은 30대가 154명(51.3%)으로 가장 많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이 236명(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류기간은 2년 이상~4년 10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13명(4.3%)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규입국이 중단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44명(81.3%)으로 가장 많았다.

## □ 한국어 수준 정도

외국인노동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176명(58.6%)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사용하고, 99명(33%)은 모국어만 사용, 25명(8.3%)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 능력 자격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 중 토픽Ⅰ 82명(27.3%), 토픽Ⅱ 24명(8%),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2명(0.6%), 2단계 1명(0.3%), 기타(없음)이 183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114명(38%)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차지하고, 조금 서툴다 80명(26.6%), 조금 잘 한다 49명(16.3%), 매우 잘 한다 30명(10%), 27명(9%)은 매우 서툴다고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듣기** 능력은 보통이 126명(42%), 조금 서툴다 99명(33%), 조금 잘 한다 31명(10.3%), 매우 잘 한다 30명(10%), 매우 서툴다 14명(4.6%)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읽기** 능력은 보통이 140명(46.6%), 조금 서툴다 92명(30.6%), 조금 잘 한다 28명(9.3%), 매우 잘 한다 와 매우 서툴다는 각각 20명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쓰기** 능력은 보통이다가 135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서툴다 98명(32.6%), 매우 서툴다 30명(10%), 매우 잘 한다 19명(6.3%), 조금 잘한다가 18명(6%)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의향 있다가 182명(60.6%), 배울 의향이 없다가 118명(39.3%)로 나타났다.

## □ 근무기간, 사업장 변경

한국에 최초 입국 후 173명(57.6%)이, 사업장 변경을 한 적이 없고, 127명(42.3%)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 변경이 있다고 응답한 127명 중 1년 이상~2년 미만 51명(40.1%), 1년 미만 34명(26.7%), 2년 이상~3년 미만 32명(25.1%), 4년 이상~5년 미만 6명(4.7%), 5년 이상 3명(2.3%)순으로 나타났고, 사업장 변경사유는 임금체불, 휴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50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적어서가 28명(22%), 일이 힘들어서 23명(18.1%),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근로시간이 적어서는 각각 8명(6.2%),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는 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 □ 재취업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에 대한 질문에는 55명(43.3%)이 구인 사업장 정보 부족, 49명(38.5%)이 의사소통부족, 21명(16.5%)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응답하였고, 직장 결정 시에 77명(60%)이 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작업환경 24명(18.8%), 휴일·연장근무 등 7명(5.5%), 법정근로시간 보장·미

래비전·기숙사시설 각 5명(3.9%), 자국 문화 존중·배려 등 인간적인 대우 4명(3.1%) 순으로 나타났다.

#### □ 고충·애로 사항 해소(1.2 순위 선택)

외국인노동자가 고충·애로 해소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기관은 130.5명(43.5%)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순위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57.5명(19.2%)이 외국인 동료 친구에 도움을 요청, 3순위는 고용센터·출입국 등 공공기관 56명(18.6%), 직장 관리자, 대표 등은 42명(14%)로 나타났다.

#### □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97명(99%)이고, 2명이 한국 직원에게서, 1명은 사업주라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 언어적·신체적 폭행 관련 질문에 295명(98.3%)이 없다, 있다고 응답한 5명(1.6%) 중에서 4명은 직장 상사, 1명이 한국 직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장 상사, 임원, 사업주로부터 폭행·협박·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298명(99.3%)이 없다, 2명(0.6%)이 한국직원이라고 응답하였다.

#### □ 근로계약 기간 및 기숙사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최초 근로계약기간(3년)에 대한 질문에 148명(49.3%)이 괜찮다, 119명(39.6%)이 너무 길다, 32명(10.6%)이 1년 단위로 계약에 응답하였다. 기숙사는 201명(67%)이 사업주가 제공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마련 99명(33%)이 근로자가 마련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방문취업비자(H-2)는 대부분 직접 기숙사를 마련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 형태는 58명(28.8%)이 원룸, 49명(24.3%)이 단독 주택, 45명(22.3%)이 아파트(빌라), 24명(11.9%)이 비주거용 건물, 17명(8.4%)이 다세대 주택, 8명(3.9%)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201명의 응답자 중 99명(49.2%)이 매우만족, 78명(38.8%)이 만족, 24명(11.9%)이 보통, 불만족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없었다.

#### □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대한 질문에 249명(83%)이 직장가입자, 49명(16.3%)이 지역가입자로 응답하였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44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150명(50%)이

좋음, 129명(43%)이 아주 좋음, 21명(7%)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139명(46.3%)이 좋음, 139명(46.3%)이 아주 좋음, 22명(7.3%)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 한 점은 176명(58.6%)이 의사소통이라고 가장 남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이 67명(22.3%), 39명(13%)이 진료비용, 9명(3%)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에는 197명(65.6%)이 인터넷(SNS)을 주로 하고, 51명(17%)이 TV시청, 13명(4.3%)이 커뮤니티 등 동호회 활동, 10명(3.3%)이 한국어 공부 순으로 나타났다.

### □ 귀국준비 및 본국 재정착

귀국준비에 대한 질문에는 155명(51.6%)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으며, 50명(16.6%)이 지금부터 준비 할 것이다 ,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35명(11.6%), 계획만 있다가 32명(10.6%), 28명(9.3%)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귀국 준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한다가 전체 78.6%(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귀국 후 창업계획에 따라 정보자료를 수집한다가 16명(11%), 귀국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가 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만으로 123명(41%)이 귀국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재입국(성실·특별) 130명(43.3%), 체류자격 변경 44명(14.6%), 불법체류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58.7%(176명)이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입국 또는 계속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유는 본국과 임금 차이가 많다가 167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97명(32.3%)이 본국에 일자리가 없다, 한국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와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가 각각 12명(4%),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1.6%), 기타 7명(2.3%)으로 나타났다.

### □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다가 16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97명(32.3%), 보통 39명(13%), 불만족 · 매우 불만족 각1명(0.3%)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9.3%(298명)가 한국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 센터 이용 및 상담 만족도

- 센터를 이용 경로는 직장상사·동료·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229명(76.3%)로 가장 많았고, 고용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해서 22명(7.3%), 리플

랫 등 홍보 책자로 17명(5.6%), 취업교육 시에 14명(4.6%), 모바일 앱·SNS를 통해가 11명(3.6%),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소개 7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 시 언제든지 센터를 이용한다가 184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월4회 이상 67명(22.3%), 월3회 32명(10.6%), 월1회 11명(3.6%), 월2회 6명(2%)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하는 목적은 상담이 93.6%(281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 11명(3.6%), 고용허가제 관련 정보공유 6명(2%) 순으로 나타났다.

- 상담내용은 145명이 출입국 관련사항에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고충(118명), 임금체불(102명), 사업장변경애로(93명),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70명), 행정신고(66명), 귀국준비(60명), 산업재해(57명),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관련(43명), 구직관련(24명), 질병 의료비(19명), 민·형사 사건(19명), 부당해고(13명), 성희롱·성폭행(12명), 동료와의 갈등(7명), 폭언·폭행(3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받은 내용은 해당사항 모두를 체크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 중단으로 인한 출국지연 또는 정부의 체류기간 직권 연장 조치 등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상담 만족도는 300명(100%)이 모두 매우만족하다고 응답 하였고, 센터에 재방문의사가 있다가 296명(98.6%), 4명(1.3%)이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3명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1명은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으로 1순위는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이 162명(54%)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관련 상담이 59명(19.6%), 한국어 교육 관련 상담이 24명(8%), 귀국관련 상담이 20명(6.6%), 산재·생활법률 관련 상담이 18명(6%), 취업 창업 관련 상담이 12명(4%), 진로상담이 3명(1%), 기타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일상생활 관련 상담 98명(32.6%), 한국어 교육 관련 상담 51명(17%),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40명(13.3%), 귀국 관련 상담 39명(13%), 산재·생활법률 관련 상담 28명(9.3%), 취업 창업관련 상담 22명(7.3%), 진로상담 21명(7%), 성희롱·성폭행 관련 상담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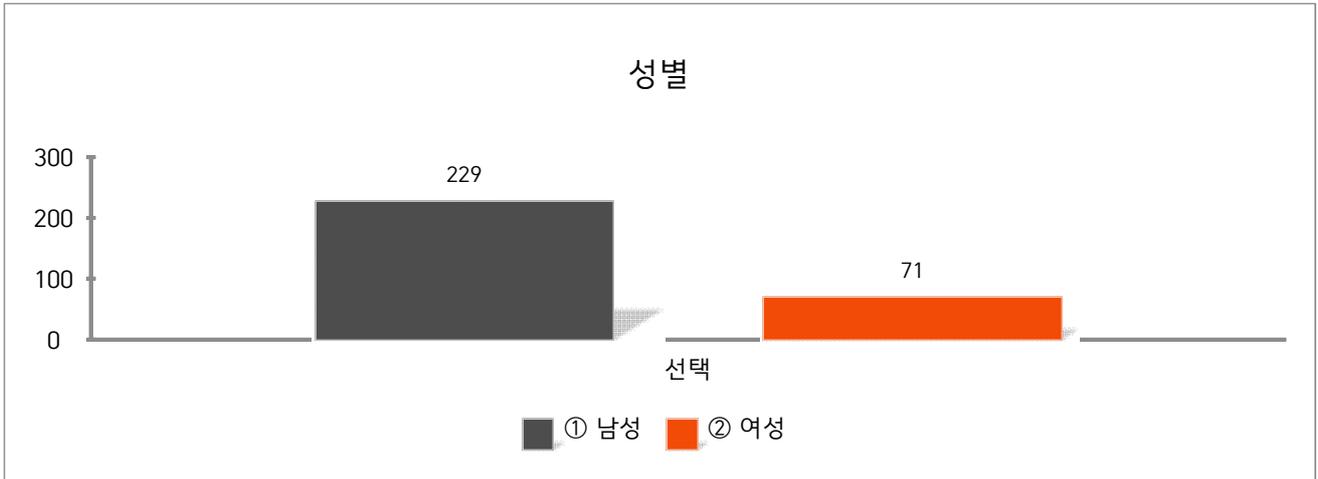
개선의견으로는 일반취업교육 온라인교육 접속이 너무 어렵다,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에서 근로하는 방문취업(H-2)비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체류자격 변경(F-4) 애로가 많고, E-9비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애로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Ⅲ. 외국인노동자 국내 취업활동 실태조사 분석

####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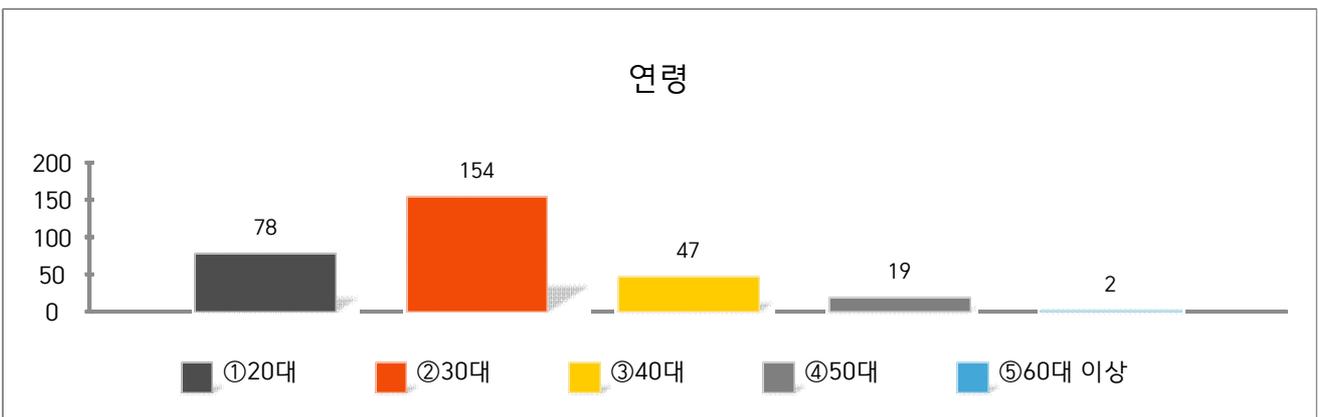
구분	① 남성	② 여성
인원수(명)	229	71



○ 응답자의 300명 중 229명(76.3%)이 남성이며, 71명(23.6%)여성으로 나타남

##### 2. 귀하의 연령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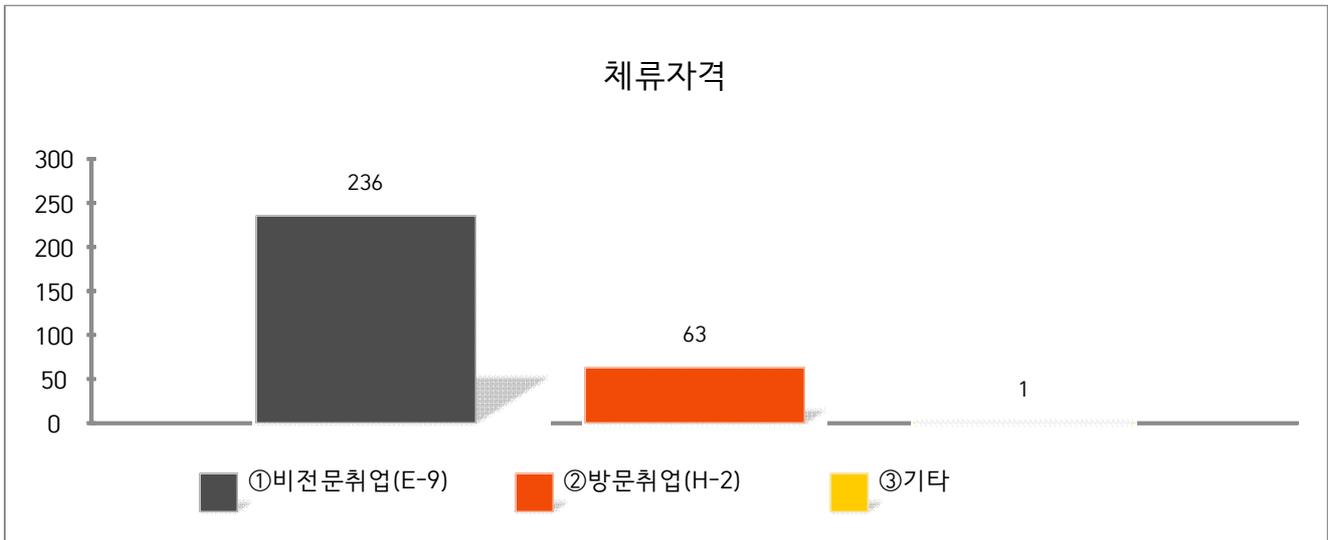
구분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인원수(명)	78	154	47	19	2



○ 응답자 300명 중 20대 78명(26%), 30대 154명(51.3%), 40대 47명(15.6%), 50대 19명(6.3%), 60대 2명(0.6%)로 나타남

### 3. 귀하의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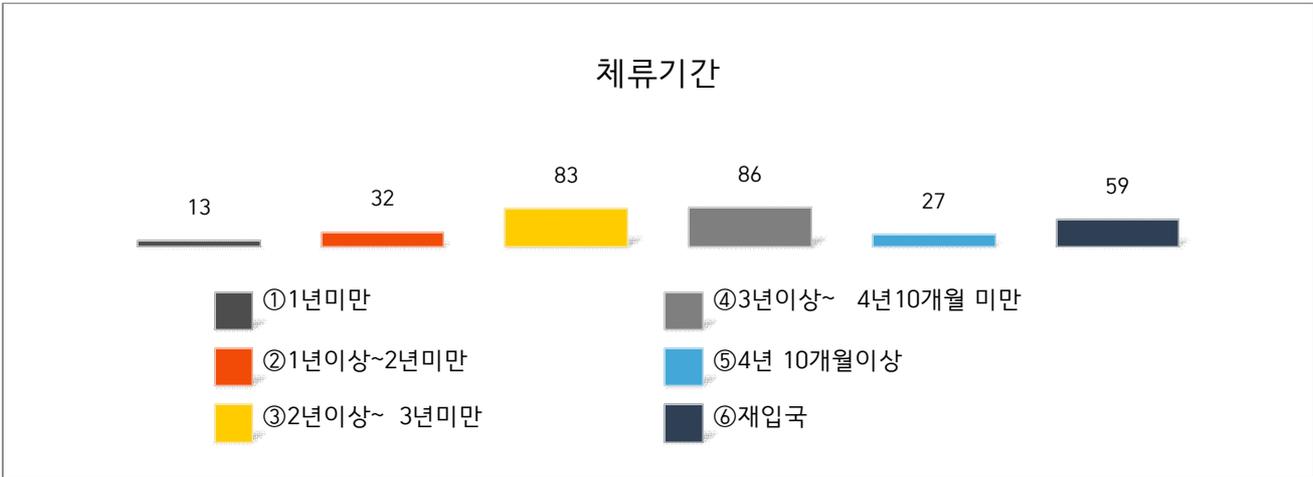
구분	①비전문취업(E-9)	②방문취업(H-2)	③기타
인원수(명)	236	63	1



- 응답자 300명 중 비전문취업비자(E-9) 236명(78.6%), 방문취업비자(H-2) 63명(21%)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숙련기능인력(E-7-4) 1명(0.3%)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가 방문취업비자(H-2)보다 센터 내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 귀하의 체류기간은 ?

구분	①1년 미만	②1년이상~2년미만	③2년이상~3년미만	④3년이상~4년10개월 미만	⑤4년 10개월이상	⑥재입국
인원수(명)	13	32	83	86	27	59



- 응답자 300명 중 3년 이상~ 4년 10개월 미만 86명(28.6%), 2년 이상~3년 미만 83명(27.6%), 재입국 59명(19.6%), 1년 이상~2년 미만 32명(10.6%), 4년 10개월 이상 27명(9%), 1년 미만 13명(4.3%) 순으로 나타남
- 2년 이상~4년 10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규입국이 중지되거나 제한되어 1년 미만 체류근로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5. 귀하의 국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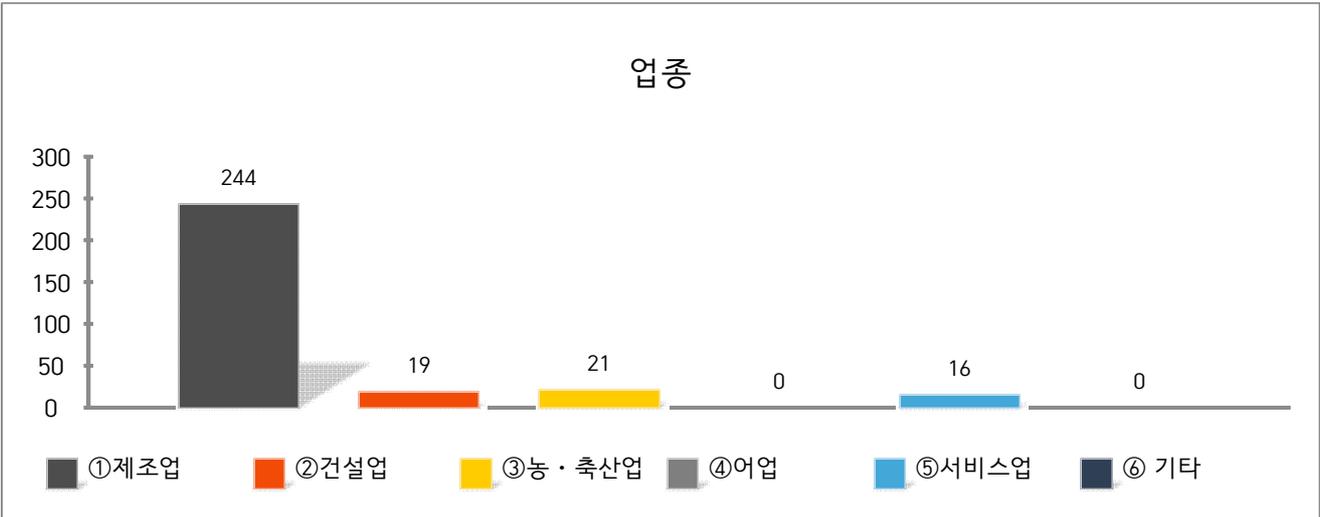
구분	① 베트남	② 우즈베키스탄	③ 파키스탄	④ 몽골	⑤ 네팔	⑥ 방글라데시	⑦ 스리랑카	⑧ 태국	⑨ 필리핀	⑩ 인도네시아	⑪ 동티모르	⑫ 미얀마	⑬ 라오스	⑭ 캄보디아	⑮ 중국(E-9)	⑯ 중국(H-2)	⑰ 키르기스스탄	⑱ 기타
인원 수 (명)	50	50	-	-	50	-	-	-	50	-	-	-	-	50	4	46	-	-



○ 이번 설문조사는 센터의 상담원 해당 국가 6개 나라별로 50부씩 실시 함

## 6. 취업분야

구분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농·축산업	④어업	⑤서비스업	⑥ 기타
인원수(명)	244	19	21	0	16	0



○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300명 중 제조업 244명(81.3%), 농·축산업 21명 (7%), 건설업 19명 (6.3%), 서비스업 16명(5.3%) 순으로 나타남

- 센터에는 제조업 근로자들 가장 많이 내방하고 있고, 농·축산업은 캄보디아근로자로 확인되었고, 건설업은 중국(H-2)국적이며, 서비스업은 식당에서 근로자하는 중국(H-2)이며, 어업은 통영, 거제 남해 등 센터에 내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 7. 한국어 수준

7-1. 귀하는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구분	① TOPIK I (1, 2급)	② TOPIK II (3, 4, 5급 이상)	③ KIIP 1 단계 수료	④ KIIP 2 단계 수료	⑤ KIIP 3 단계 수료	⑥ KIIP 4 단계 이상 수료	⑦ 기타 (없음)
인원수(명)	82	24	2	1	0	8	183

### 한국어능력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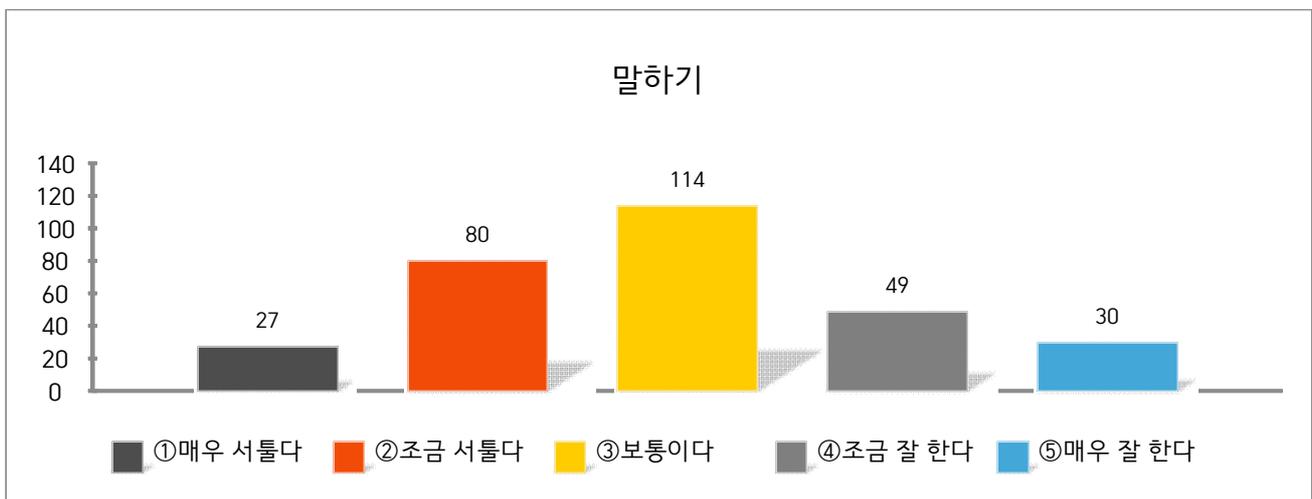


○ 응답자 300명중 기타(없음) 183명(61%), 토픽 I 82명(27.3%), 토픽 II 24명(8%),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2명(0.6%), 2단계 1명(0.3%)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1%가 한국어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취업비자(H-2)는 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어 관련 자격이 없고, 설문에 참여한 필리핀 근로자는 모두 한국어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7-2. 귀하의 한국어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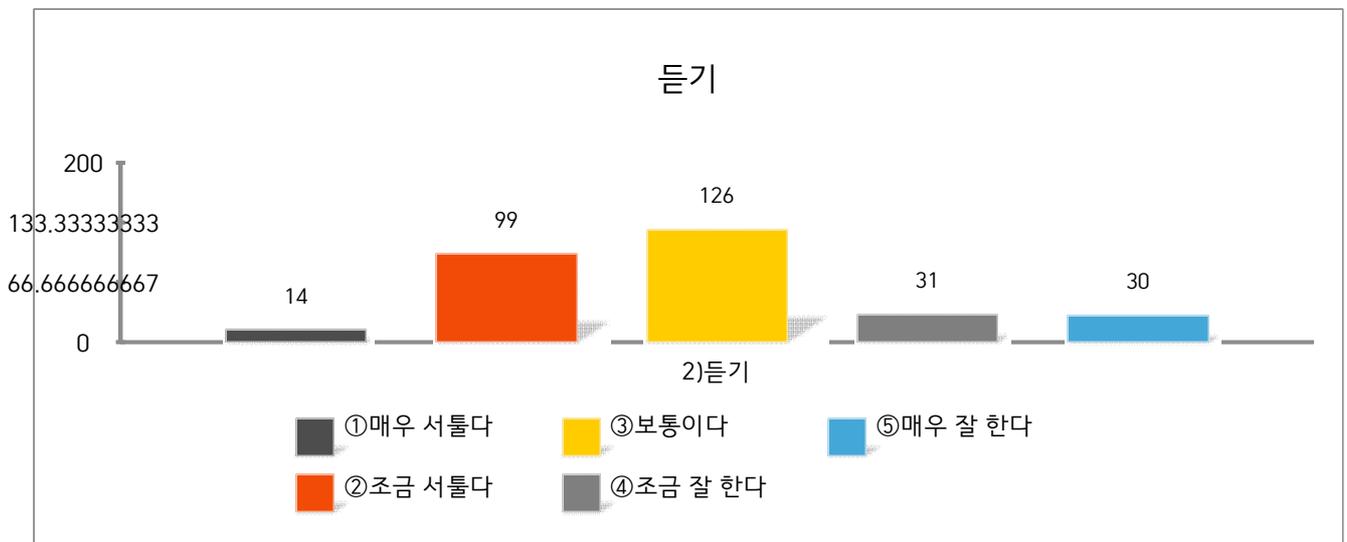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 서툴다	②조금 서툴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잘 한다	⑤매우 잘 한다
1)말하기 (명)	27	80	114	49	30



○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보통이 114명(38%), 조금 서툴다 80명(26.6%), 조금 잘한다 49명(16.3%), 매우 잘 한다 30명(10%), 매우 서툴다 27명(9%) 순으로 나타남

- 매우 잘 한다고 응답한 경우 방문취업비자(H-2)가 대부분 이었고, 매우 서툴다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 입국 1년 근로자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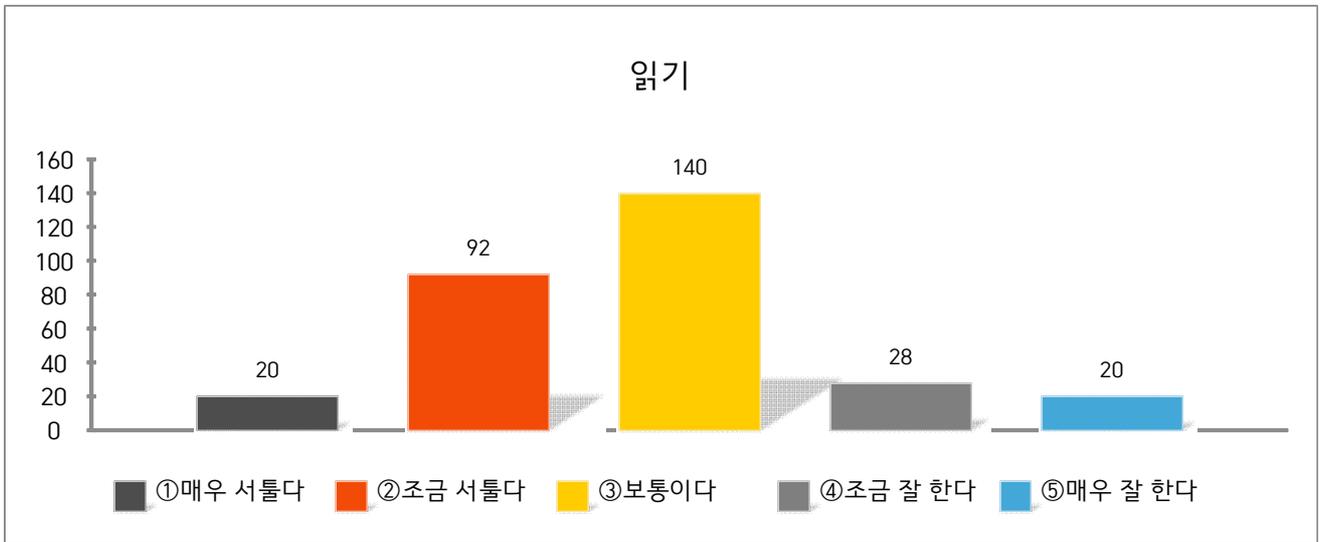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 서툴다	②조금 서툴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잘 한다	⑤매우 잘 한다
2)듣기(명)	14	99	126	31	30



○ 한국어 듣기 능력은 보통이 126명(42%), 조금 서툴다 99명(33%), 조금 잘한다 31명(10.3%), 매우 잘 한다 30명(10%), 매우 서툴다 14명(4.6%) 순으로 나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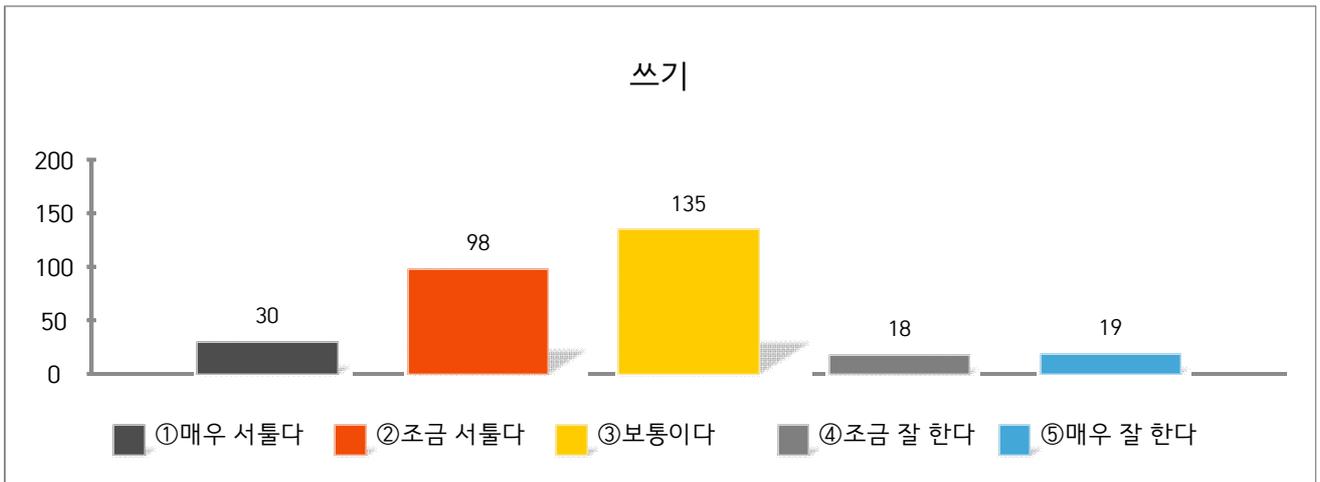
-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듣기 부분도 매우 잘 한다에 응답한 대부분은 방문취업 비자(H-2)가 대부분 이었고 매우 서툴 다에 응답한 자는 대부분 입국 1년 근로자로 나타 남

구분	①매우 서툴다	②조금 서툴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잘 한다	⑤매우 잘 한다
3)읽기(명)	20	92	140	28	20



○ 한국어 읽기 능력은 보통이 140명(46.6%), 조금 서툴다 92명(30.6%), 조금 잘한다 28명(9.3%), 매우 잘 한다 와 매우 서툴다 각20명 (6.6%) 순으로 나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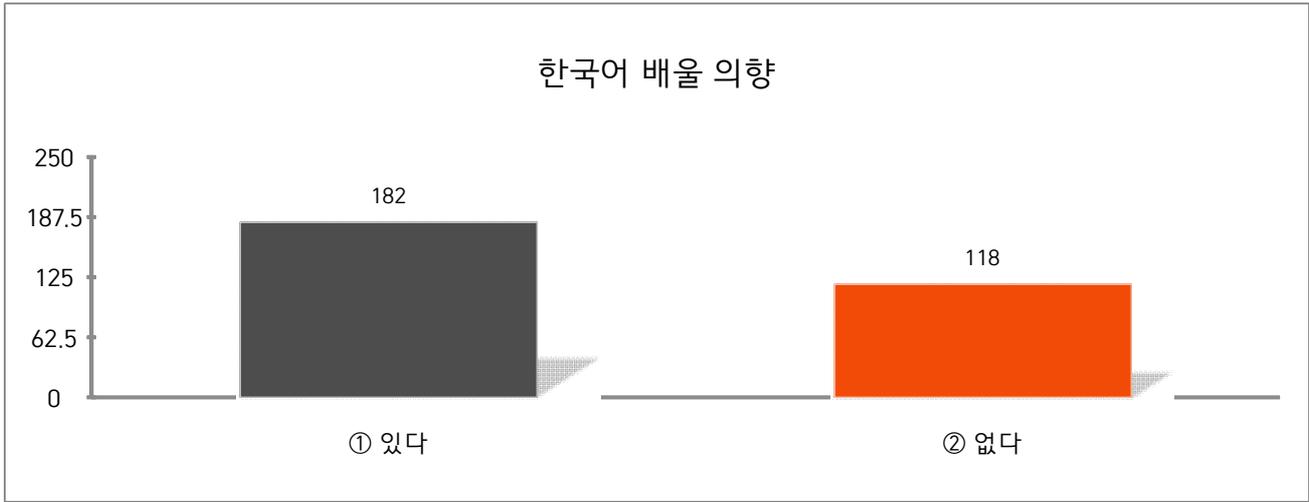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 서툴다	②조금 서툴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잘 한다	⑤매우 잘 한다
4)쓰기(명)	30	98	135	18	19



○ 한국어 쓰기 능력은 보통이 135명(45%), 조금 서툴다 98명(32.6%), 매우 서툴다 30명(10%), 매우 잘 한다 19명(6.3%), 조금 잘한다 18명(6%) 순으로 나타 남

### 7-3. 귀하는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인원수(명)	182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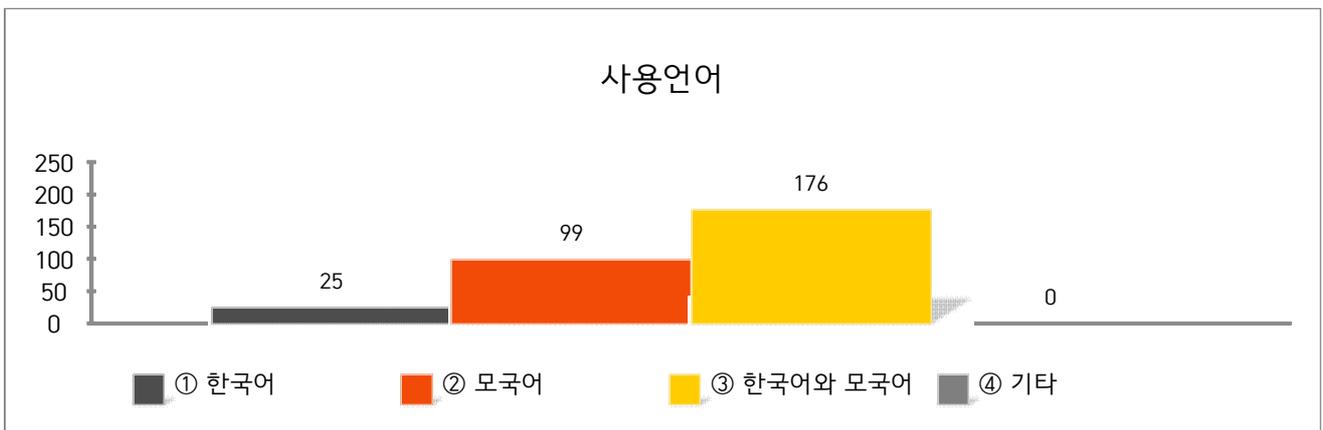


○ 한국어를 배울 의향은 응답자 300명 중 배울 의향이 있다 182명(60.6%), 배울 의향이 없다 118명(39.3%)로 나타 남

- 근로가 바쁘거나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근로자들은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필리핀 국적의 응답자 50명 전원은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추후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음

### 7-4. 현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한국어와 모국어	④ 기타
인원(명)	25	99	17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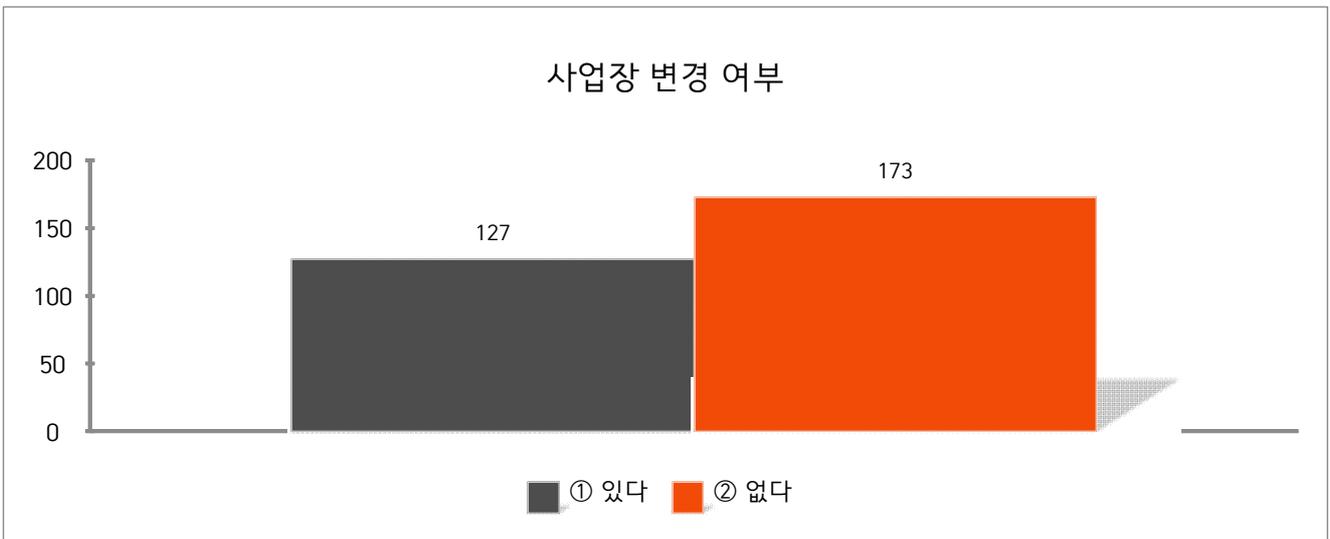


-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응답자 300명 중 176명(58.6%)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사용, 99명(33%)이 모국어 사용, 25명(8.3%)이 한국어 사용으로 나타남
  - 모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7-2문항의 「말하기 능력」 질문에 107명이 서툴다 라고 답하였고, 그 대부분이 모국어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방문취업비자(H-2)비자 중 중국국적 응답자인 것으로 나타 남

## 2. 취업활동

### 1. 귀하는 한국에 최초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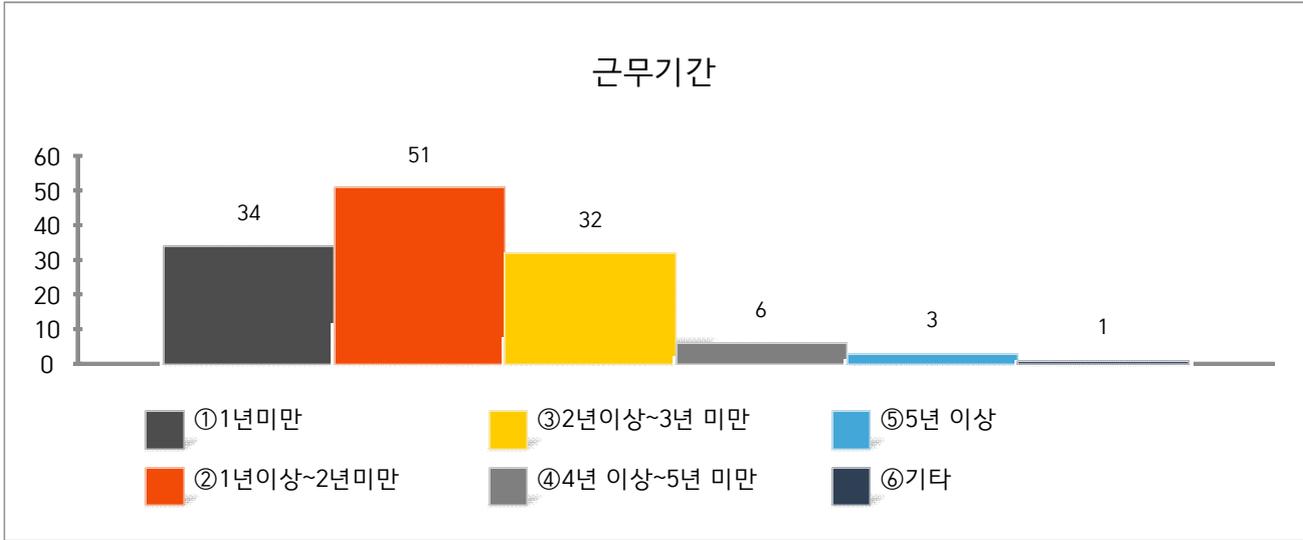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2번 문항으로)
인원수(명)	127	173



-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300명 중 없다 173명(57.6%), 있다 127명(42.3%)로 나타 남
  - 비전문취업 비자(E-9)는 3년 내 3번 사업장변경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 방문취업비자(H-2)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1-1. 귀하는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분	①1년미만	②1년 이상~2년미만	③2년이상~3년미만	④4년 이상~5년 미만	⑤5년 이상	⑥기타
인원수 (명)	34	51	32	6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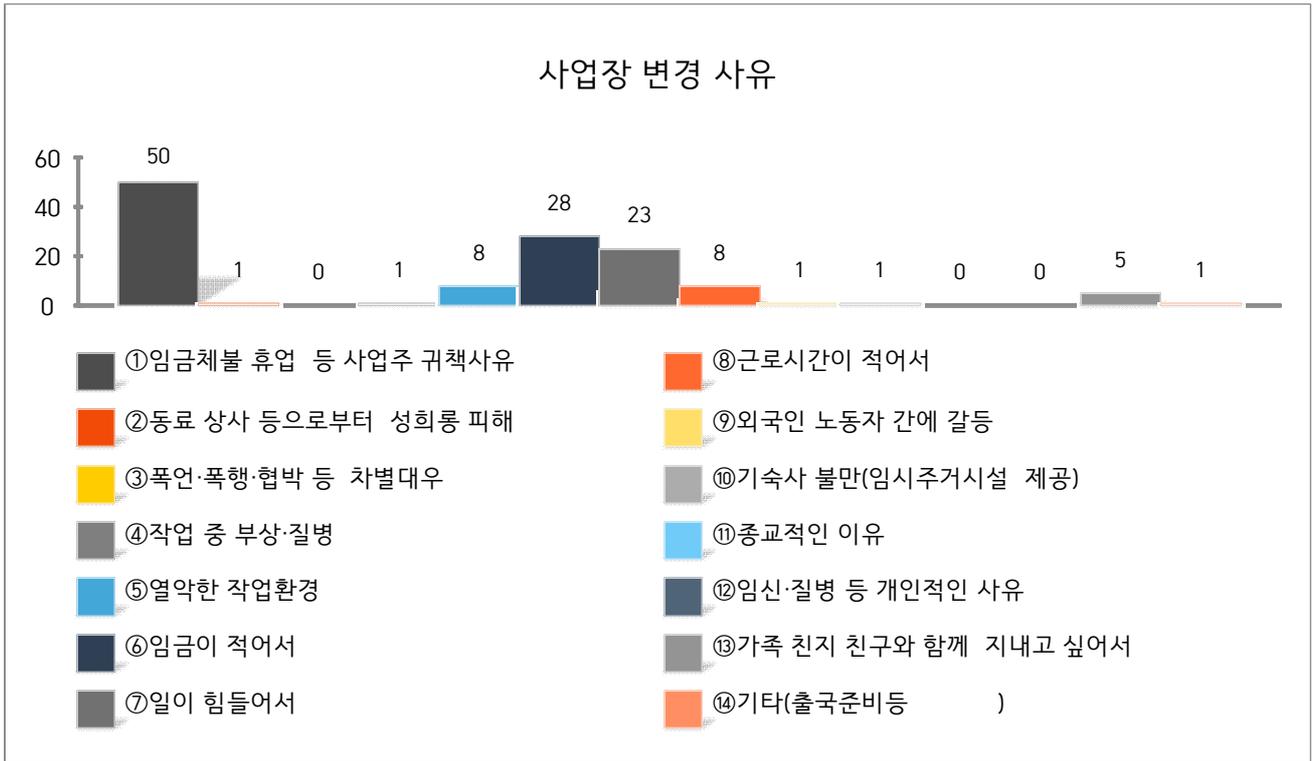
○ 사업장 변경이 있는 127명 중 1년 이상~2년 미만 51명(40.1%), 1년 미만 34명(26.7%), 2년 이상~3년 미만 32명(25.1%), 4년 이상~5년 미만 6명(4.7%), 5년 이상 3명(2.3%), 기타 1명(0.7%)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117명(92%)가 근로기간 평균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기간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6명은 입국 초에 사업장 변경을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귀하가 사업장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 임금체불, 업무부담 과중, 근무환경 악화	② 동료, 상사 때문에 업무부담 과중, 업무환경 악화	③ 복귀, 휴직, 퇴직, 이직, 이직, 이직	④ 자영업, 부업, 창업	⑤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	⑥ 임금 미적어서	⑦ 일의 흥미 없어	⑧ 근로시간이 적어서	⑨ 외국인의 노동자 간에 갈등	⑩ 기숙사 불만(임시주거시설 제공)	⑪ 종교적 이유	⑫ 임신, 질병 등 개인적 사유	⑬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⑭ 기타(출국준비 등 )
----	--------------------------	-------------------------------	--------------------------	---------------	----------------	-----------	------------	-------------	------------------	---------------------	----------	-------------------	--------------------------	---------------

인원 수 (명)	50	1	0	1	8	28	23	8	1	1	0	0	5	1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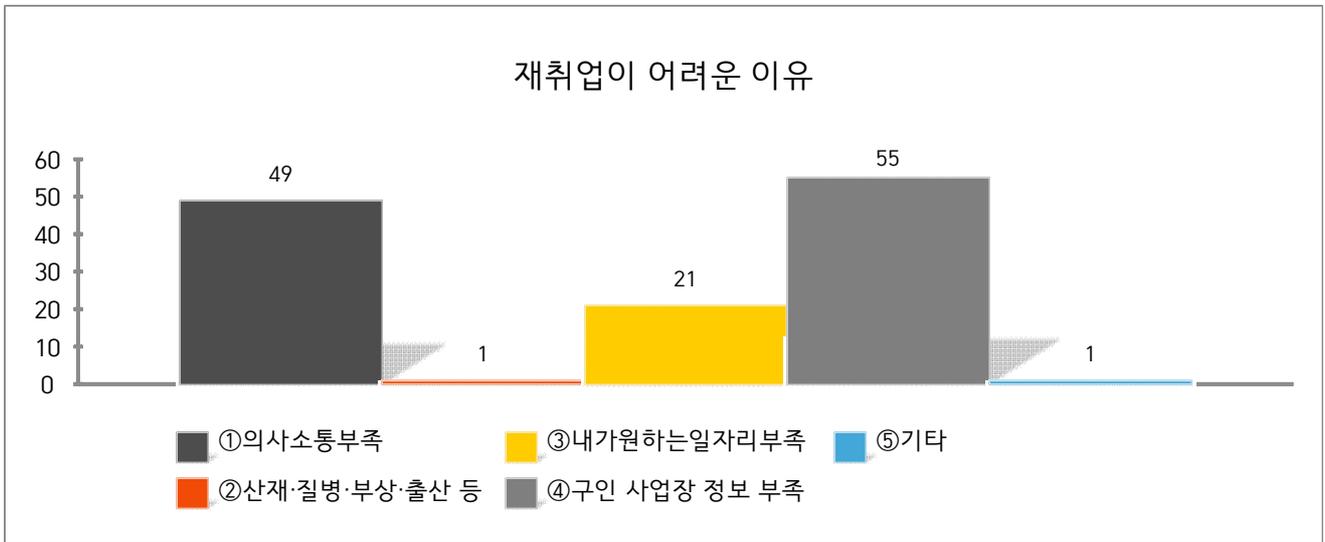


○ 사업장 변경사유는 50명(39.3%)이 임금체불 · 휴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임금이 적어서 28명(22%), 일이 힘들어서 23명(18.1%),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근로시간이 적어서 각 8명(6.2%),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5명(3.9%) 순으로 나타 남

-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사업장변경 사유를 임금체 불 및 급여가 적어서 라고 응답한 이유가 있다고 봄

**1-3. 귀하는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의사소통 부족	②산재·질병·부 상·출산 등	③내가원하는일자 리부족	④구인 사업장 정보 부족	⑤기타 ( )
인원수 (명)	49	1	21	5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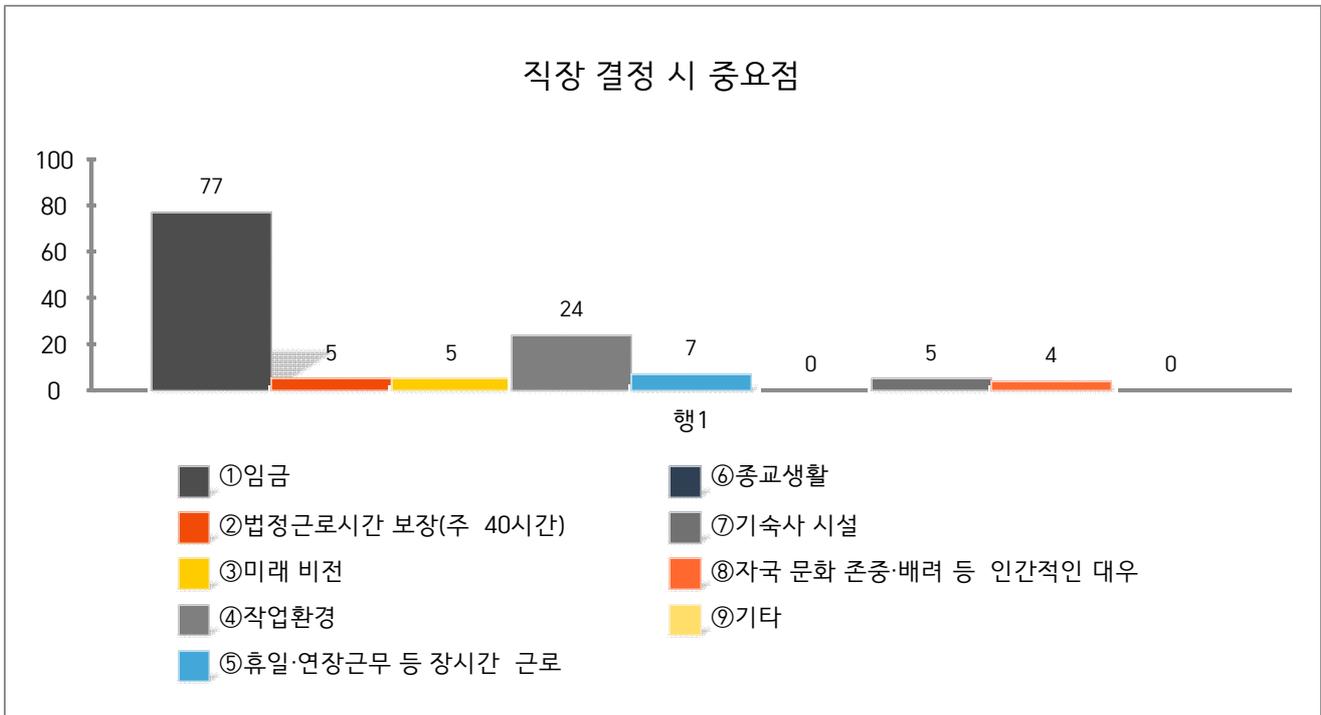


○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이 힘든 사유는 구인 사업장 정보 부족 55명(43.3%), 의사소통 부족 49명(38.5%), 내가 원하는 일자리 부족 21명(16.5%) 등으로 나타남

-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후 알선을 받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소통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근로자가 알선을 받게 되었을 때 스스로 해당 사업장의 근무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봄

#### 1-4. 귀하는 직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임금	② 법정 근로시간 보장 (주 40시간)	③ 미래 비전	④ 작업 환경	⑤ 휴일·연장근로 등 근무시간 근로	⑥ 종교 생활	⑦ 기숙사 시설	⑧ 자국 문화 존중·배려 등 인간적 대우	⑨ 기타 ( )
인원 수 (명)	77	5	5	24	7	0	5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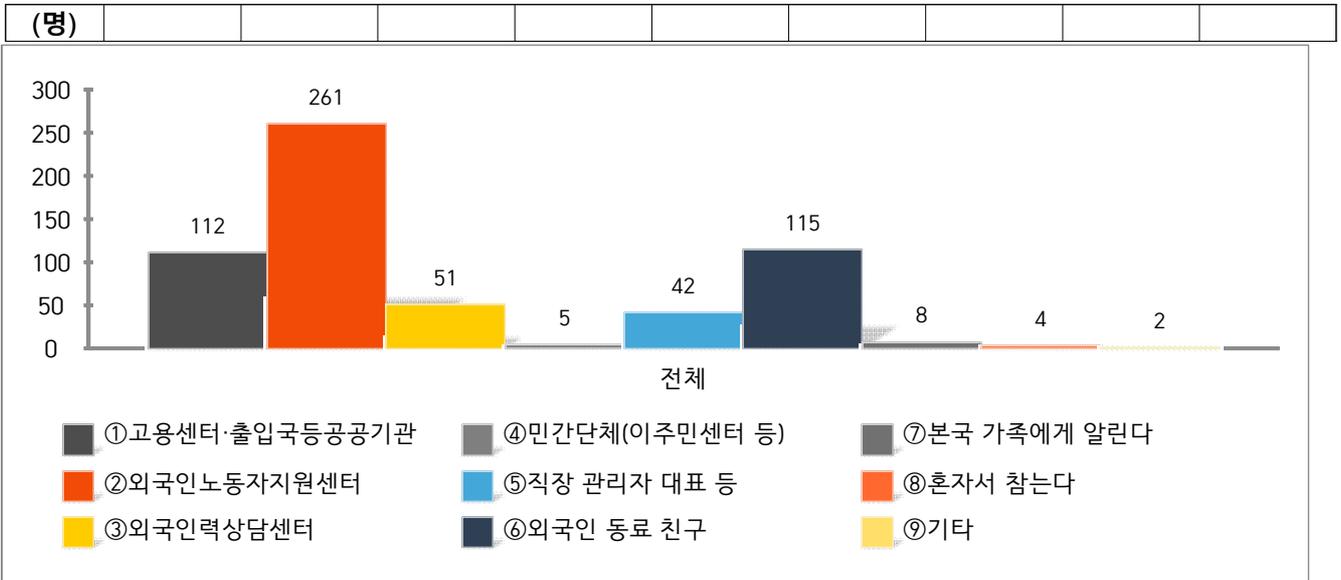


○ 직장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조건은 임금 77명(60%), 작업환경 24명 (18.8%), 휴일·연장근무 등 7명(5.5%), 법정근로시간 보장·미래비전·기숙사 시설 각 5명(3.9%), 자국 문화 존중·배려 등 인간적인 대우 4명(3.1%)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 근무 후 재고용연장을 통해 1년10개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는 사업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임금으로 나타남

## 2. 귀하는 애로·고충사항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것 같습니까?

구분	① 센터·국공 용출등기관	②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③ 외국인 상담센터	④ 민간 단체(이 센터 등)	⑤ 직장 관리자, 대표	⑥ 외국 인동료, 친구	⑦ 본국 에게 알린다	⑧ 혼자 서 참는다	⑨기타
1순위 (명)	53	183	35	2	6	16	1	2	2
2순위 (명)	59	78	16	3	36	99	7	2	0
전체	112	261	51	5	42	115	8	4	2



○ 고충사항이 있을 때 1순위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83명(61%), 고용센터·출입국 등 공공기관 53명(17.6%), 외국인력상담센터 35명(11.6%), 외국인 동료 친구 16명(5.3%) 등의 순으로 나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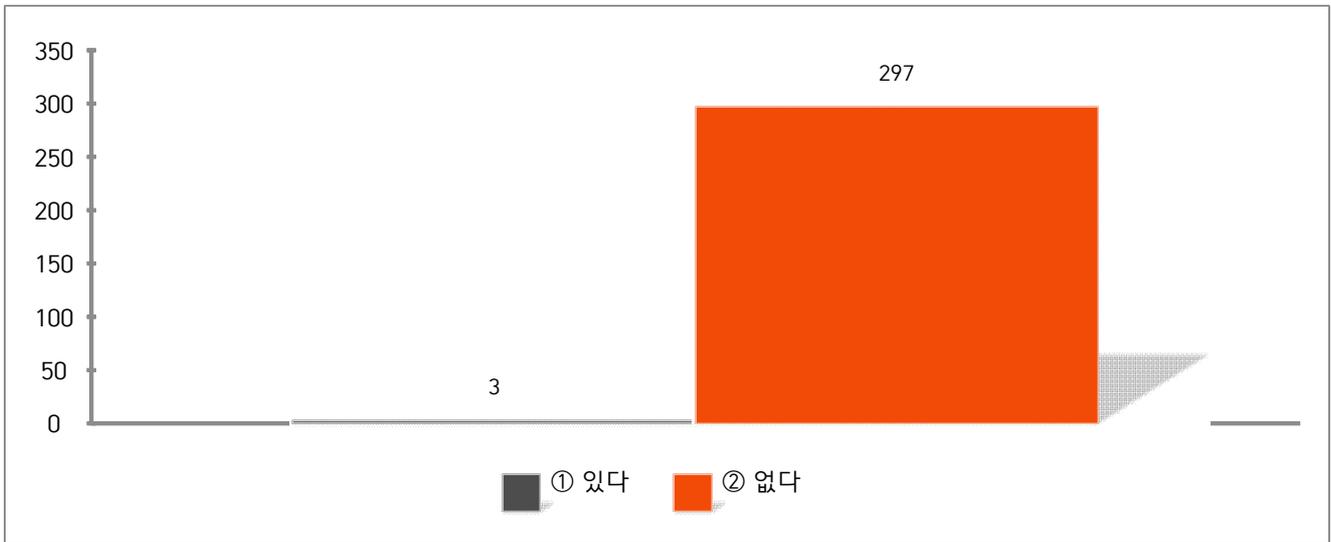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충해소를 위해 제일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으로 나타났고, 혼자 참는다, 본국가족에게 알린다, 외국인 동료 친구에게 알린다 등의 소수 응답이 있었음.

○ 고충사항이 있을 때 도움요청을 2순위로 외국인 동료 친구 99명(3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8명(26%), 고용센터·출입국 등 공공기관 59명(19.6%), 직장 관리자 대표 등 36명(12%), 외국인력상담센터 16명(5.3%), 본국 가족에게 알린다 7명(2.3%) 등의 순으로 나타 남

- 2순위는 외국인 동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3. 귀하는 직장 동료, 상사, 대표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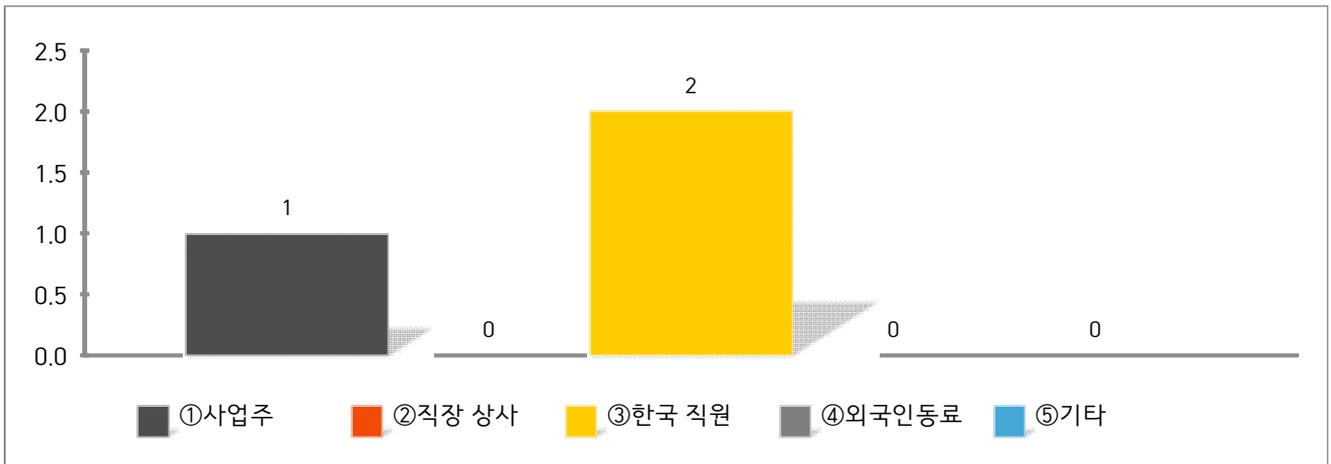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4번 문항으로)
선택	3	297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297명(99%)이 없다, 있다 3명(1%)로 나타남

3-1. 귀하는 누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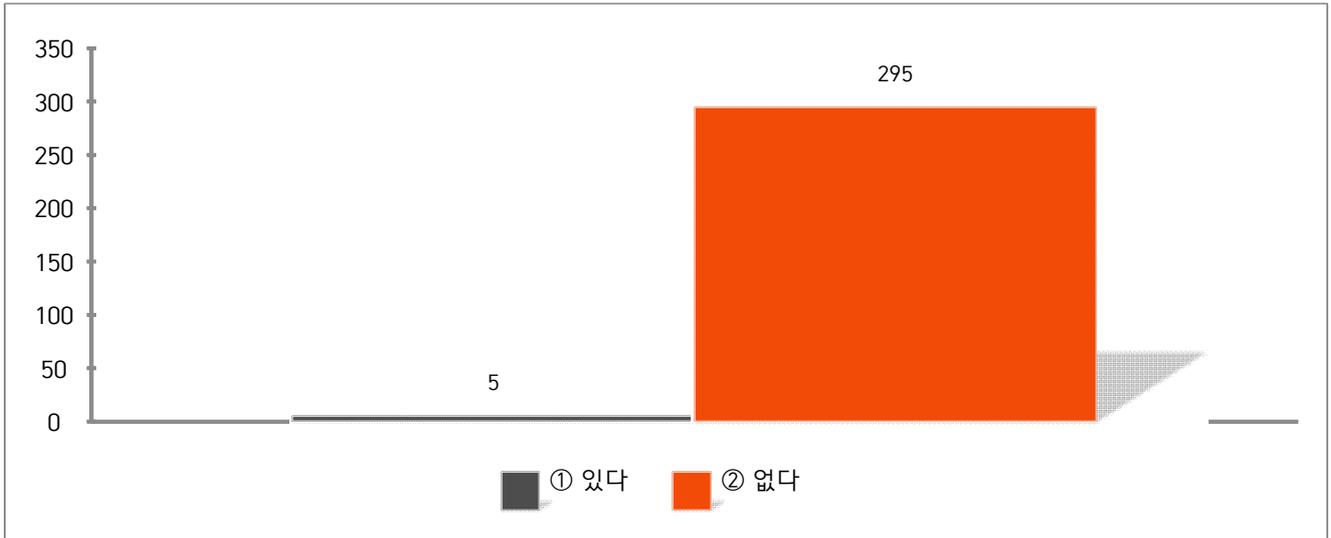
구분	①사업주	②직장 상사	③한국 직원	④외국인동료	⑤기타
인원수(명)	1	0	2	0	0



○ 성희롱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3명 중 2명이 한국 직원에게, 1명은 사업주로 나타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함

4. 귀하는 직장 상사, 임원, 사업주, 동료 근로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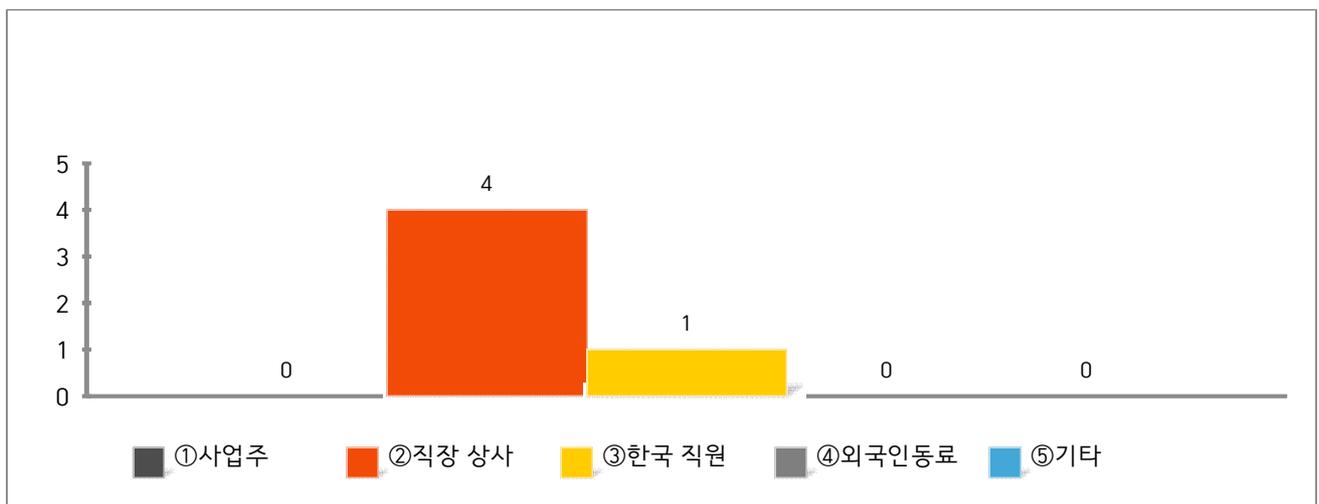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5번 문항으로)
인원수(명)	5	295



○ 직장 내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질문에 295명 (98.3%)이 없다, 있다는 5명(1.6%)로 나타 남

4-1. 귀하는 누구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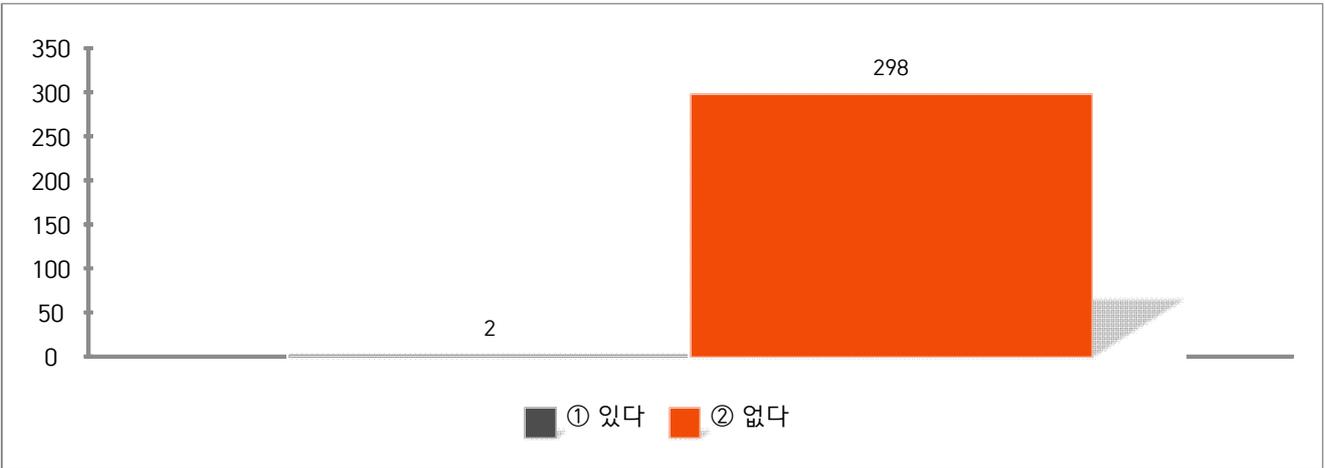
구분	①사업주	②직장 상사	③한국 직원	④외국인동료	⑤기타
인원수(명)	0	4	1	0	0



○ 언어적·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5명 중 직장 상사 4명, 한국 직원 1명으로 확인 됨

5. 귀하는 직장 상사, 임원, 사업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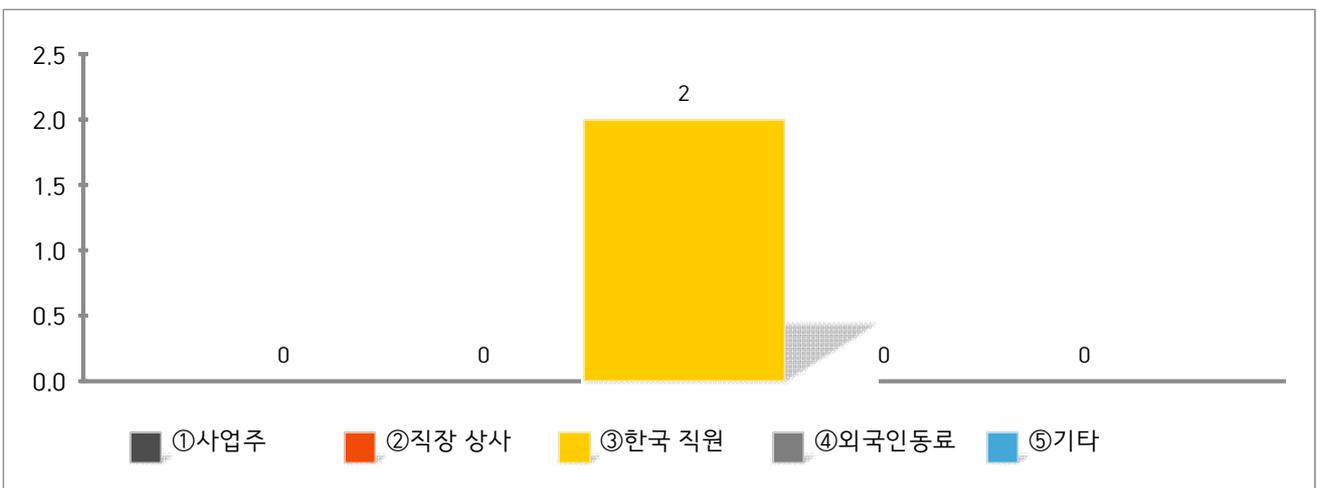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2번 문항으로)
인원수(명)	2	298



○ 근로 강요를 당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298명(99.3%)이 없다 , 있다 2명 (0.6%)로 나타 남

5-1. 귀하는 누구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당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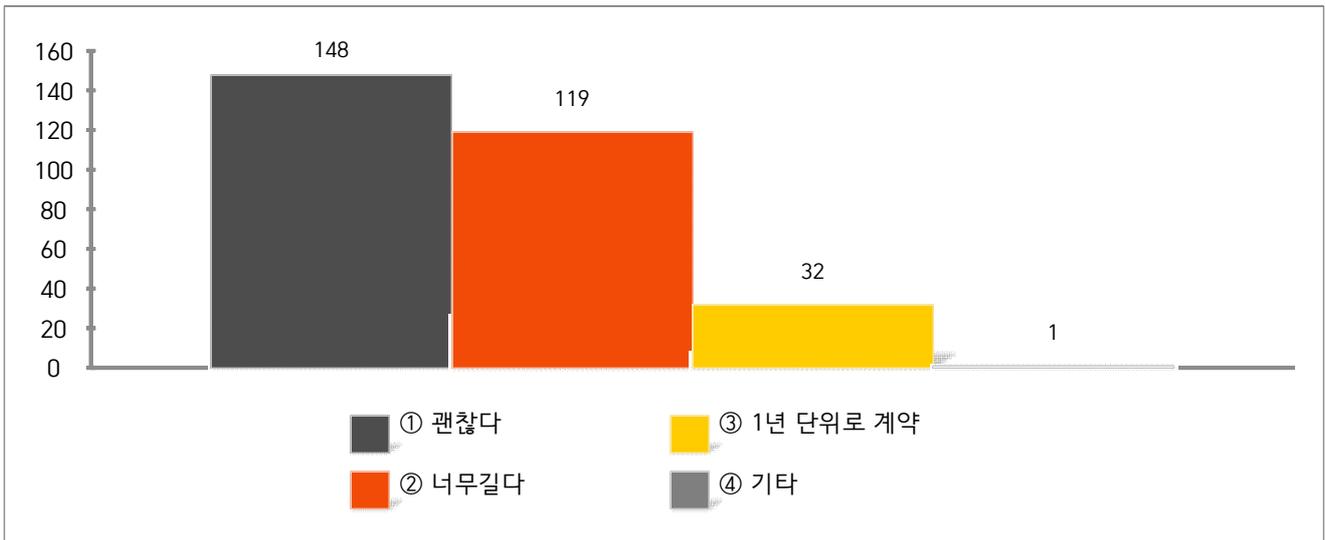
구분	①사업주	②직장 상사	③한국 직원	④외국인동료	⑤기타
인원수(명)	0	0	2	0	0



○ 응답 중 2명이 한국직원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강제 근로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남

### 6. 귀하는 근로계약기간(3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괜찮다	② 너무길다	③ 1년 단위로 계약	④ 기타
인원수(명)	148	119	3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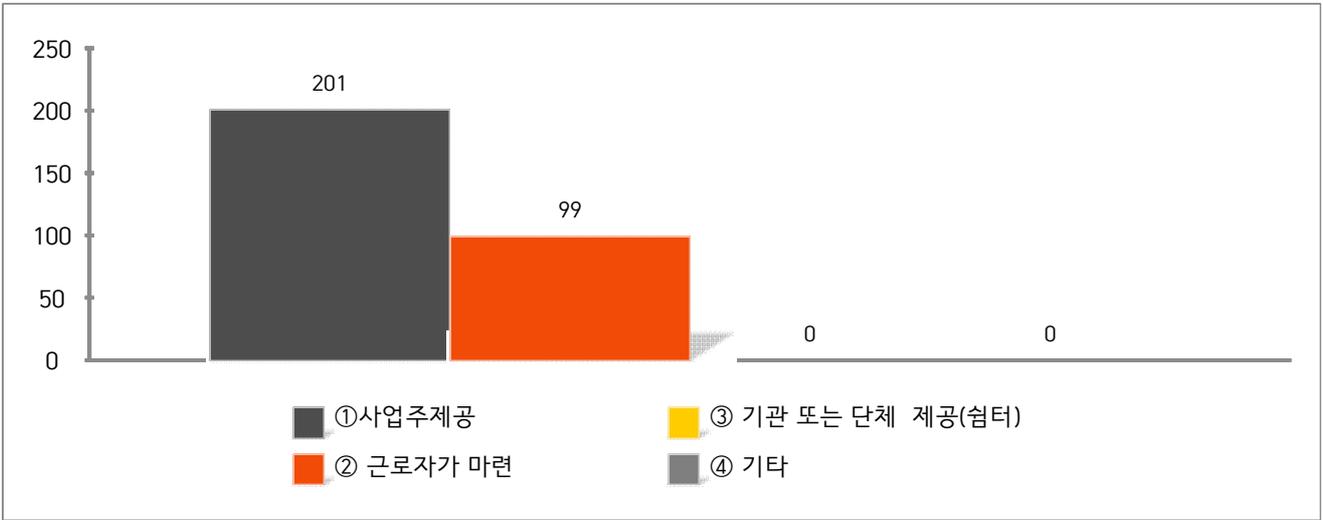


○ 근로계약 기간 3년에 대해 148명(49.3%)이 괜찮다, 너무 길다 119명(39.6%), 1년 단위로 계약 32명(10.6%) 순으로 나타 남

-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는 최초 입국 시에 사업주와 3년 근로계약 하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사업장 변경 요구가 많음
- 방문취업비자(H-2)는 입국 후에 사업장과 근로계약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해 합의 가능하고 언제든지 사업장 변경 가능함

### 7.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기숙사는 누가 제공하였습니까?

구분	① 사업주제공(7-1번문항으로)	② 근로자가 마련	③ 기관 또는 단체 제공(쉼터)	④ 기타
인원수(명)	201	99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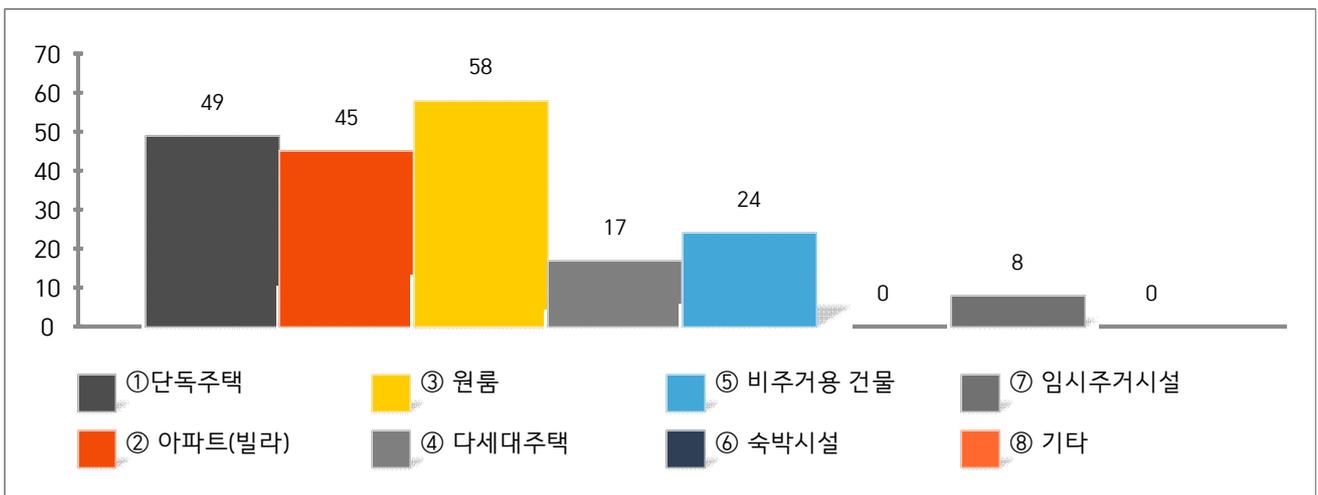


○ 기숙사 제공 여부에 관하여 사업주 제공 201명(67%), 근로자가 마련 99명(33%)로 나타남

- 비전문 취업비자(E-9)는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 취업비자(H-2)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기숙사를 마련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7-1.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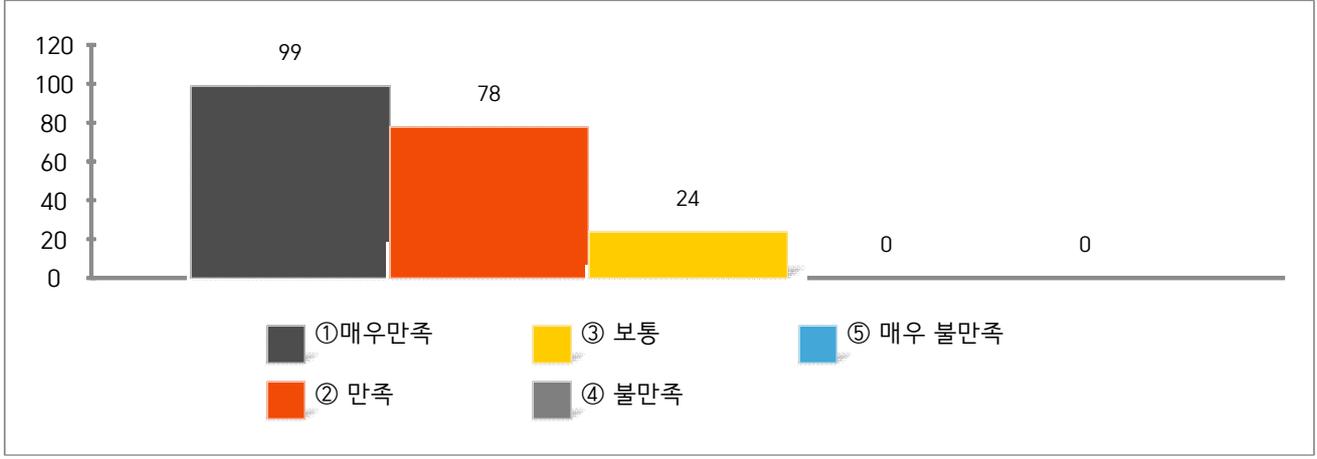
구분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빌라)	③ 원룸(고시원)	④ 다세대주택	⑤ 비주거용 건물(공장, 식당 등)	⑥ 숙박시설(여관, 펜션, 호스텔 등)	⑦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⑧ 기타
인원수(명)	49	45	58	17	24	0	8	0



○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201명의 응답자 중 주거 형태는 원룸 58명(28.8%), 단독 주택 49명(24.3%), 아파트(빌라) 45명(22.3%), 비주거용 건물 24명(11.9%), 다세대 주택 17명(8.4%), 임시주거시설 8명(3.9%) 순으로 나타 남

7-2.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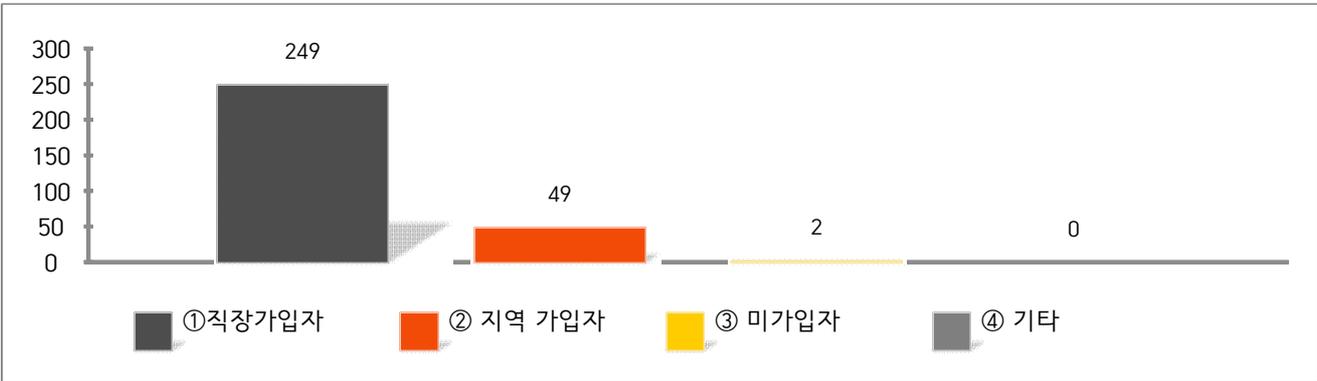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인원수(명)	99	78	24	0	0



○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201명의 응답자 중에서 기숙사 시설에 99명(49.2%)이 매우만족하다로 가장 많았고, 만족 78명(38.8%), 보통 24명(11.9%), 불만족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1명도 없었음

7. 귀하는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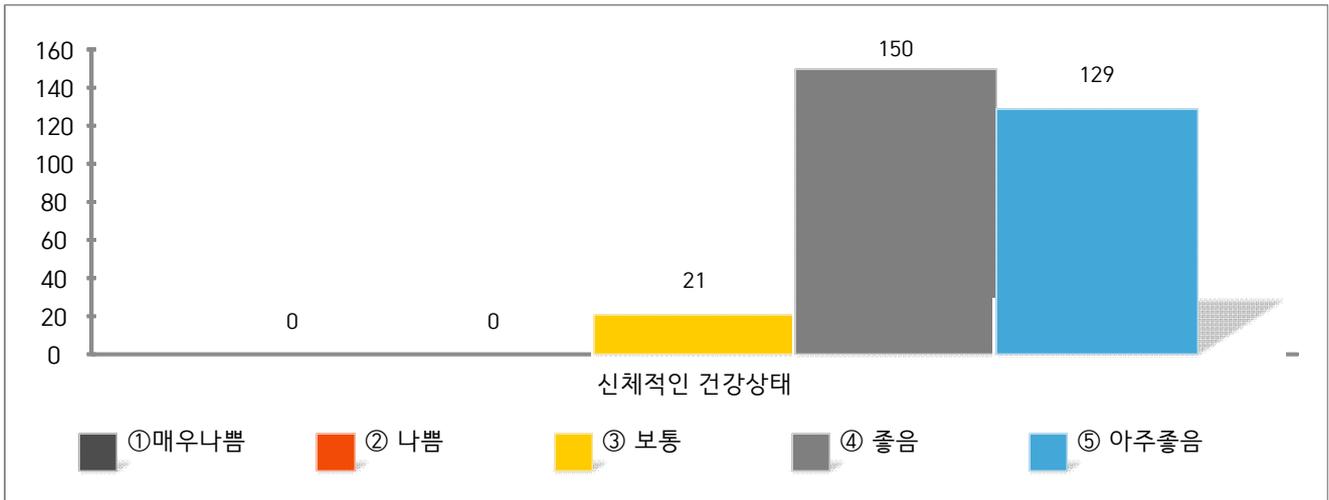
구분	①직장가입자	② 지역 가입자	③ 미가입자	④ 기타
인원수(명)	249	49	2	-



○ 건강보험 가입은 249명(83%)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49명(16.3%), 미가입자는 2명(0.7%)로 나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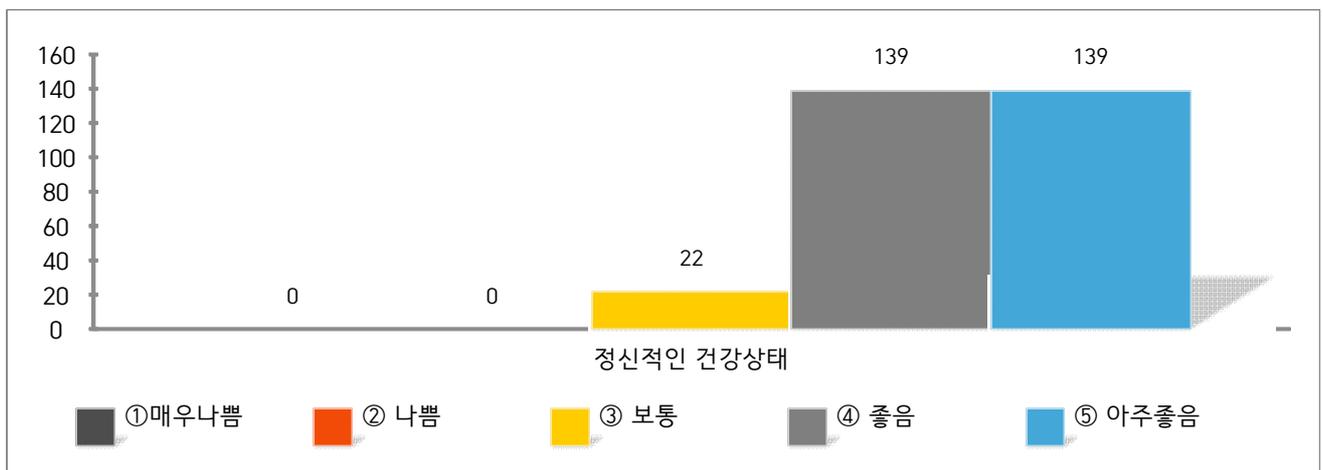
### 9. 귀하는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매우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아주좋음
신체적인 건강상태	0	0	21	150	129



○ 현재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에는 150명(50%)이 좋음, 아주 좋음은 129명(43%), 보통이 21명(7%)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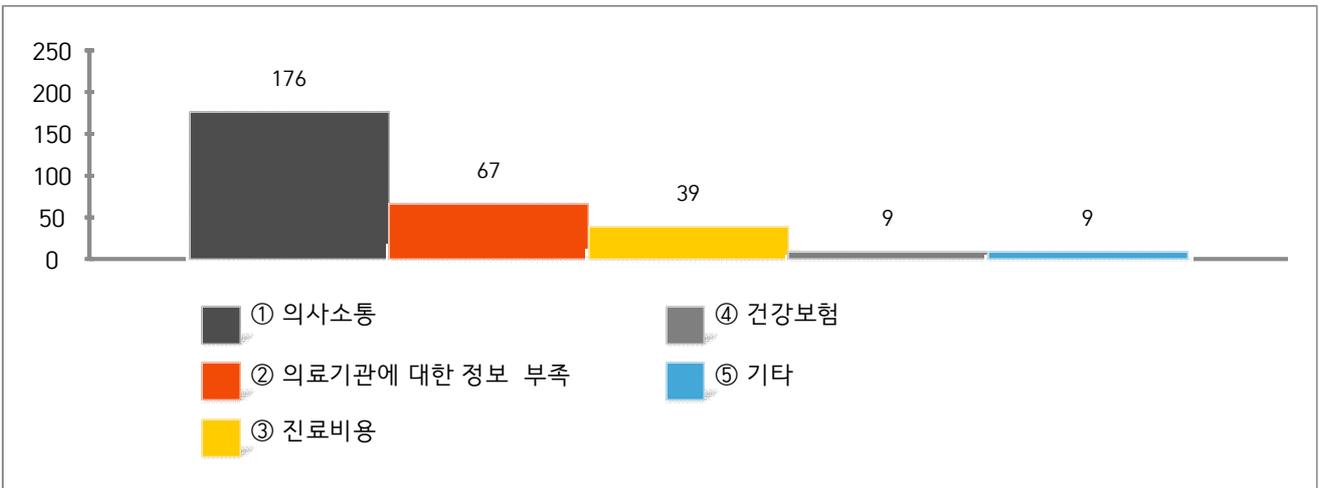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아주좋음
정신적인 건강상태	0	0	22	139	139



○ 현재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음 139명(46.3%), 아주 좋음 139명(46.3%), 보통 22명(7.3%)로 나타남

### 10. 귀하가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의사소통 애로	②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진료비용	④ 건강보험 미납	⑤ 기타
인원수(명)	176	67	39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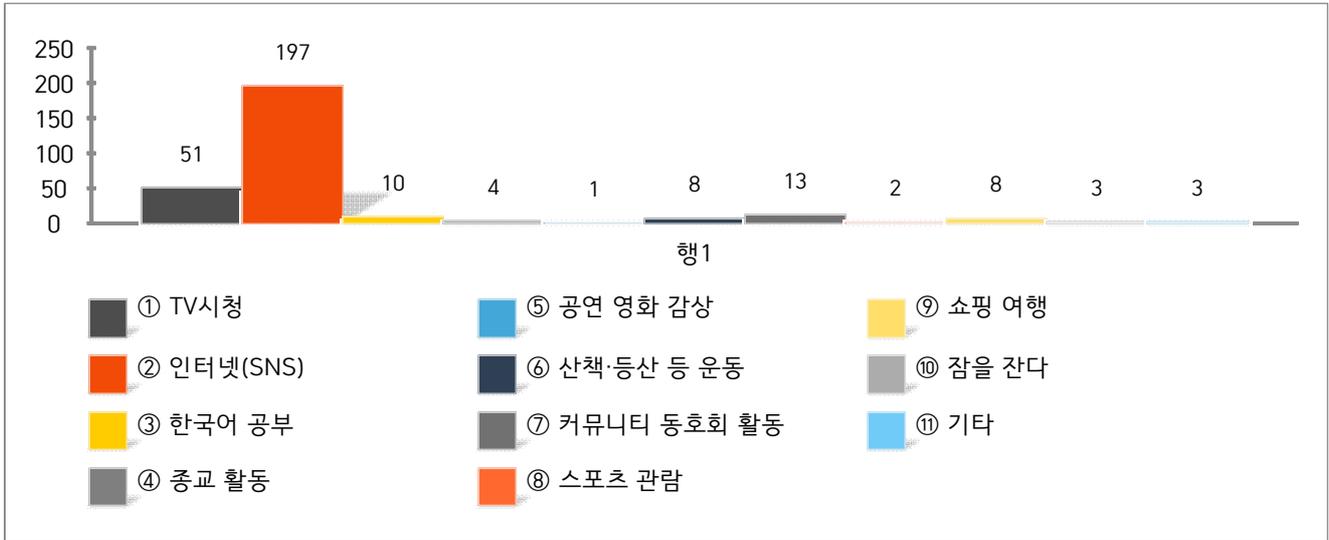


○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176명(58.6%)이 의사소통,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67명(22.3%), 진료비용 39명(13%), 건강보험 9명(3%), 9명(3%)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한국말이 서툴러서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애로가 많음

### 11. 귀하는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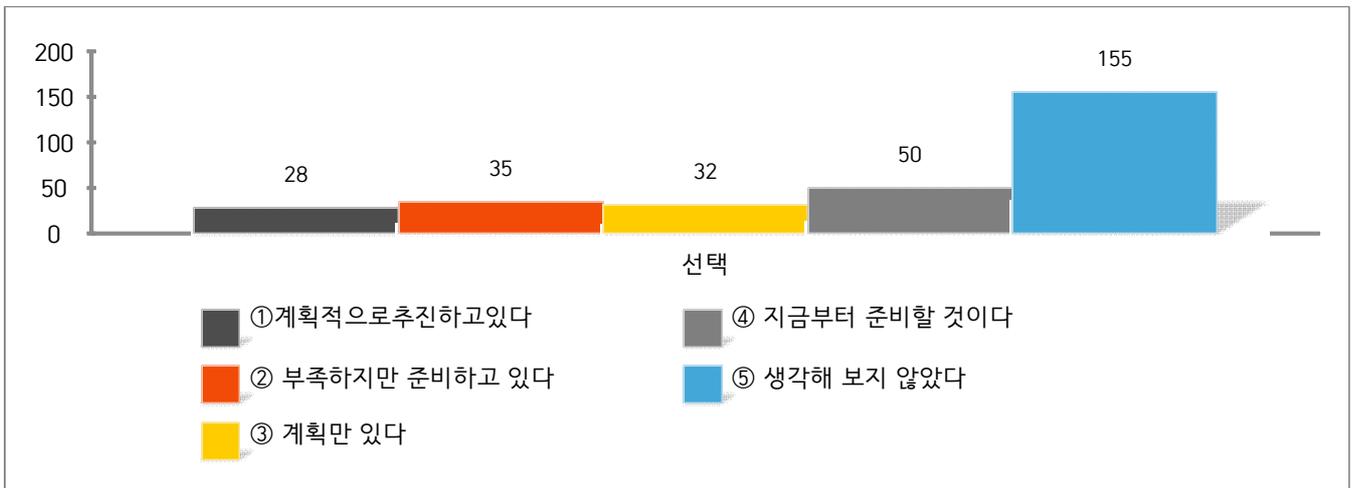
구분	① TV시청	② 인터넷(SNS)	③ 한국어 공부	④ 중·고등 교동 활동	⑤ 공연·영화 감상	⑥ 산책·산악·등산·등산 등	⑦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⑧ 스포츠 관람	⑨ 쇼핑, 여행	⑩ 잠을 잔다	⑪ 기타
인원수(명)	51	197	10	4	1	8	13	2	8	3	3



○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인터넷(SNS) 197명(65.6%), TV시청 51명(17%),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13명(4.3%), 한국어 공부 10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휴일에는 인터넷, SNS를 통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12. 귀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의 귀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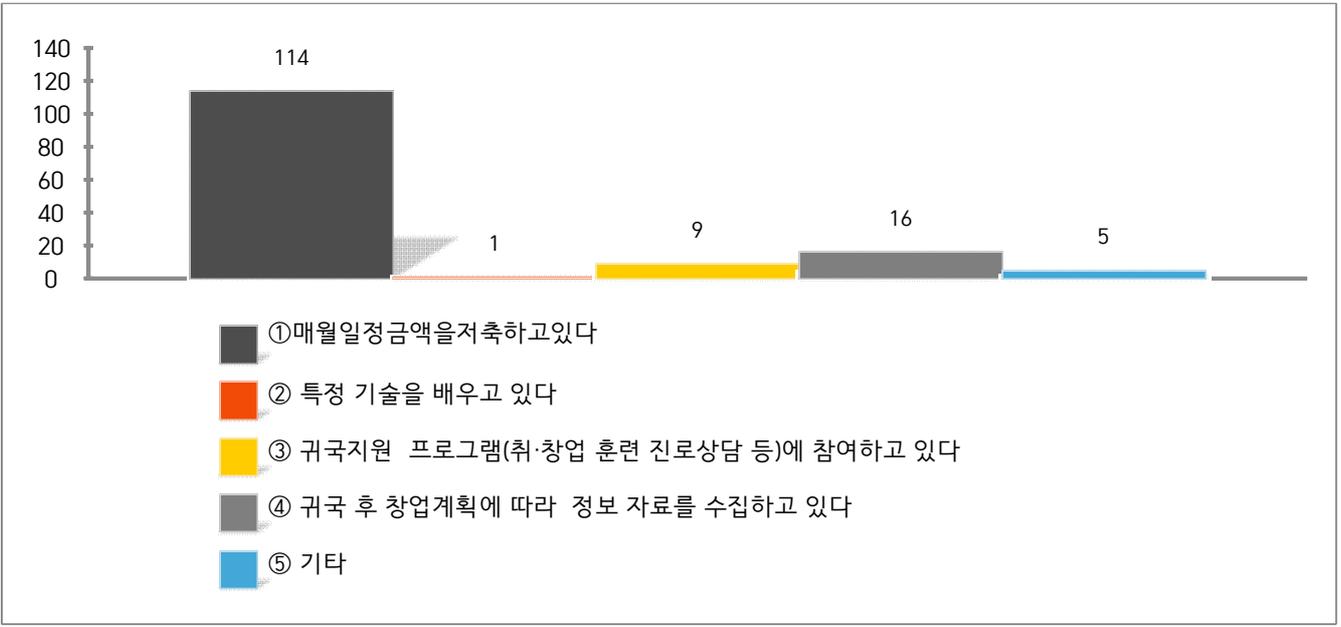
구분	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다	③ 계획만 있다	④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 (13번 문항으로)
인원수(명)	28	35	32	50	155



○ 체류 만료 후 귀국준비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 155명(51.6%), 지금부터 준비 할 것이다 50명(16.6%),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다 35명(11.6%), 계획만 있다 32명(10.6%),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8명(9.3%) 순으로 나타 남

12-1. 귀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의 귀국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분	①매월일정금액을저축하고 있다	②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③ 귀국지원 프로그램(취·창업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④ 귀국 후 창업계획에 따라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⑤ 기타
인원수(명)	114	1	9	16	5



○ 귀국 준비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가 114명(78.6)로 가장 많았고, 귀국 후 창업 계획에 따라 정보자료를 수집 16명(11%), 귀국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9명(6.2%) 순으로 나타 남

13. 귀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될 경우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구분	①귀국 (☞ 13-1번문항)	② 재입국 (성실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일반)	③ 체류자격 변경	④ 불법체류	⑤ 기타
인원수(명)	123	130	44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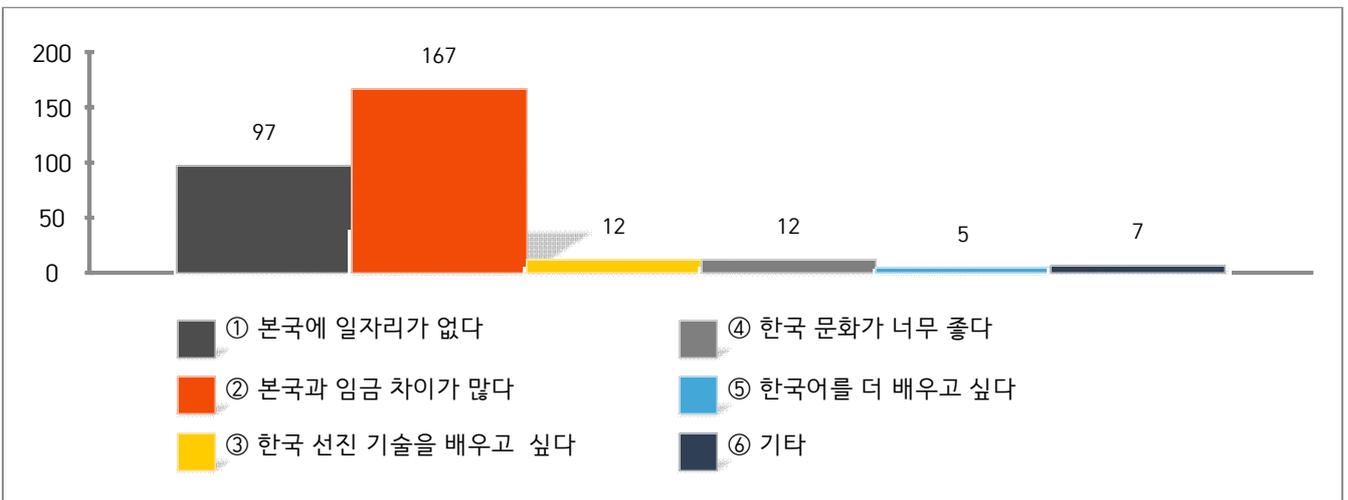


○ 체류기간만료 후 계획에 대하여 재입국(성실·특별) 130명(43.3%), 귀국 123명(41%), 체류자격 변경 44명(14.6%), 불법체류 2명(0.6%) 순으로 나타남

- 최초 입국 비전문 취업비자(E-9)근로자 같은 경우 4년10개월 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을 하였고 이미 재입국한 근로자들은 체류기간만료 후 더 이상 한국에 재입국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귀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14.6% 나타남

#### 14. 귀하가 한국에 재입국 또는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분	① 본국에 일자리가 없다	② 본국과 임금 차이가 많다	③ 한국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	④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	⑥ 기타
인원수 (명)	97	167	12	12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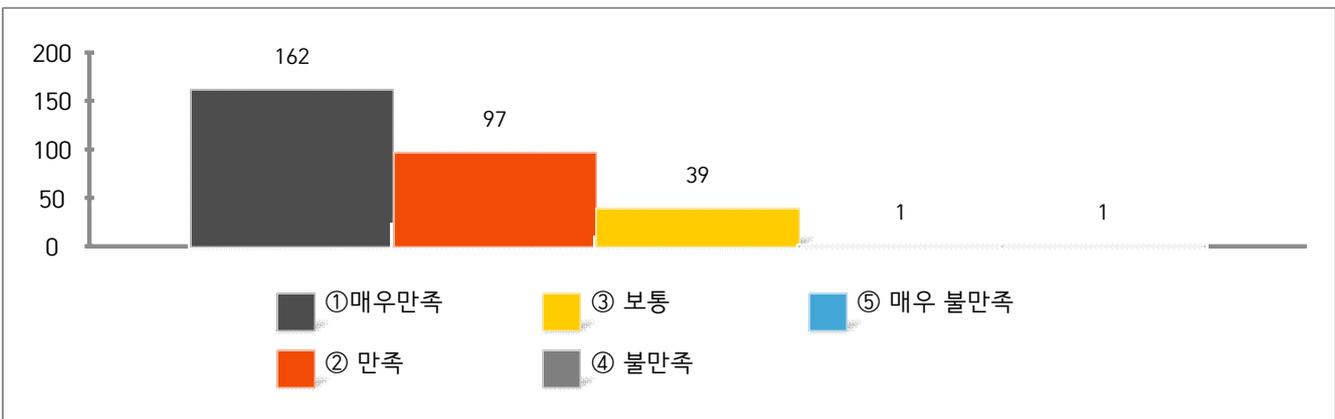


○ 재입국 및 계속 한국체류를 희망하는 사유는 167명(55.6%)이 본국과 임금 차이가 많다, 본국에 일자리가 없다 97명(32.3%), 한국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와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각각 12명(4%),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1.6%), 기타 7명(2.3%)로 나타남

- 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이유는 대부분 본국과 임금차가 크고 일자리가 없다고 함

### 15. 귀하는 한국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인원수(명)	162	97	39	1	1



○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만족 162명(54%), 만족 97명(32.3%), 보통 39명(13%), 불만족·매우 불만족이 각각 1명(0.3%)로 나타남

- 한국에서 근로활동이 힘들지만 근로자 86.3%가 한국생활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열심히 일한 댓가를 임금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 3. 센터 이용 및 상담

#### 1.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구분	① 직장상사, 동료친구 등의 소개	②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 등 소개	④ 모바일 앱, SNS 및 인터넷	⑤ 신문, 라디오, 방송	⑥ 리플렛 등 홍보 안내 책자	⑦ 취업교육 시	⑧ 기타
인원수 (명)	229	22	7	11	0	17	1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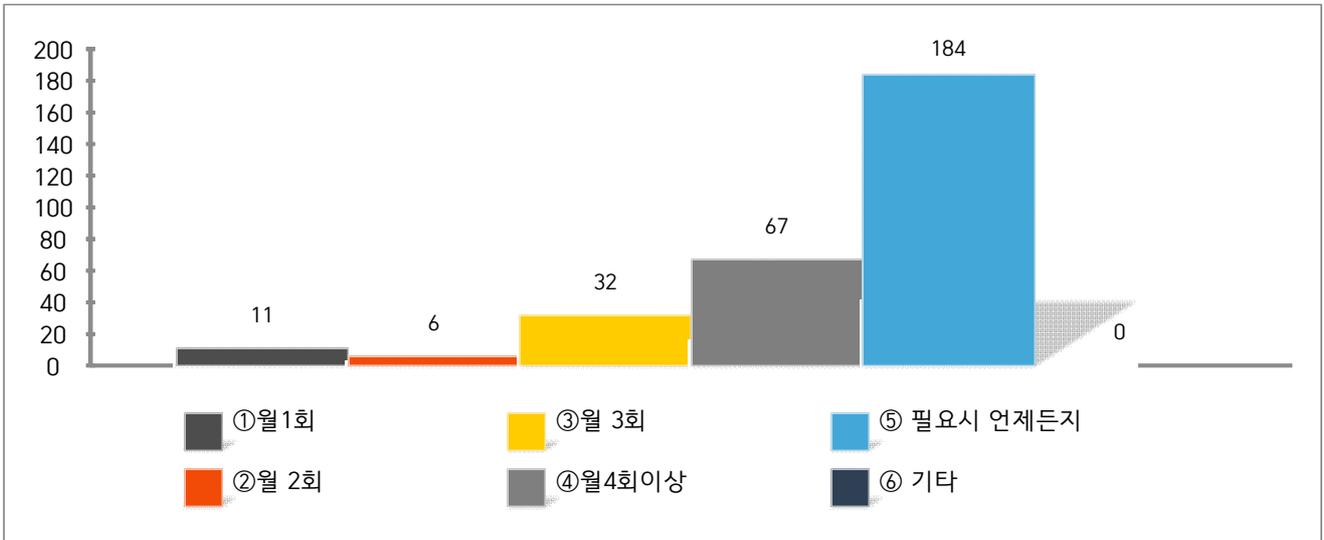


○ 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229명(76.3%)이 직장상사·동료친구의 소개라고 가장 많았고, 고용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기관의 소개 22명(7.3%), 리플렛 등 홍보 책자 17명(5.6%), 취업교육 시 14명(4.6%), 모바일 앱·SNS 11명(3.6%),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소개 7명(2.3%)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76.3%가 센터에 내방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함

#### 2.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구분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	④ 월 4회 이상	⑤ 필요시 언제든지	⑥ 기타
인원수(명)	11	6	32	67	184	0



○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는 근로자가 필요 시 언제든지 184명(61.3%), 월4회 이상 67명(22.3%), 월3회 32명(10.6%), 월1회 11명(3.6%), 월2회 6명(2%) 순으로 나타남

- 센터는 근로자 주휴인 일요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언제든지 방문 가능 함

### 3.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①상담 (4번문항으로)	② 한국어 교육	③ 고용허가제 관련 정보 공유	④ 무료진료	⑤ 종교 활동	⑥ 친구를 만나기 위해	⑦ 기타
인원수(명)	281	11	6	1	0	1	0



○ 센터 이용 목적은 상담이 281명(93.6%)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 11명(3.6%), 고용허가제 관련 정보공유 6명(2%) 순으로 나타남

#### 4.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내용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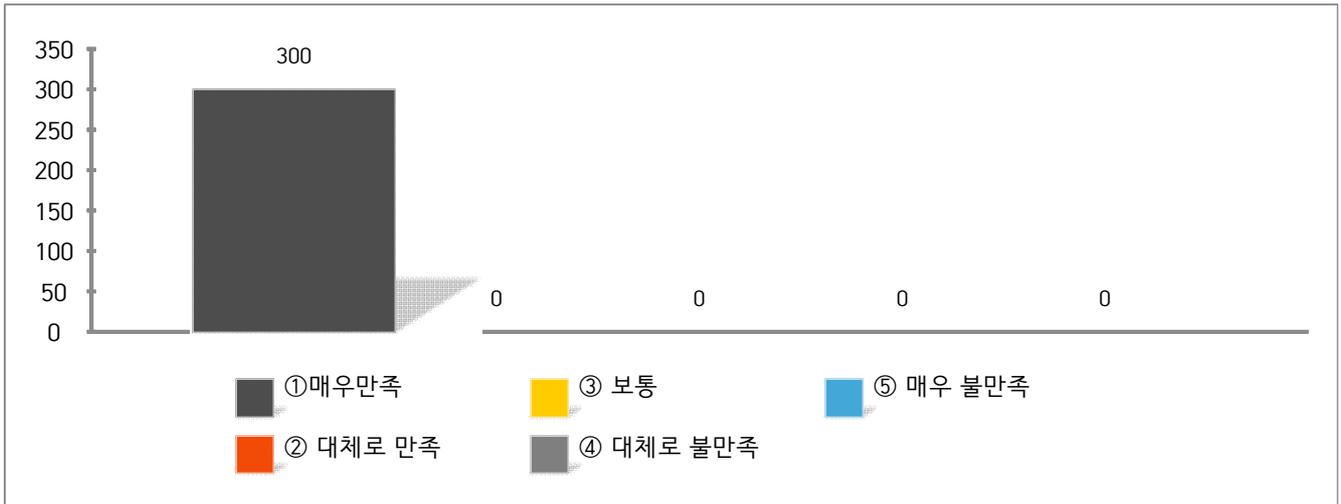
구분	①임금체불	②사업장변경애로	③산업재해	④폭언·폭행	⑤성희롱·성폭행	⑥질병·의료비	⑦부당해고	⑧근로조건및근로계약	⑨구직관련	⑩출입국관련사항	⑪고용허가제전용보험관련	⑫귀국준비	⑬동료와의갈등	⑭주거시설및숙식비	⑮민·형사사건	⑯행정신고	⑰일상생활고충	⑱기타
인원수(명)	102	93	57	3	12	19	13	70	24	145	43	60	7	14	19	66	118	



○ 상담을 받은 근로자 중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출입국 관련, 일상생활 고충, 임금체불, 사업장변경애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행정신고, 귀국준비,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관련, 구직관련, 질병 의료비, 민형사 사건, 부당해고, 성희롱·성폭행, 동료와의 갈등, 폭언·폭행 관련 순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음

5.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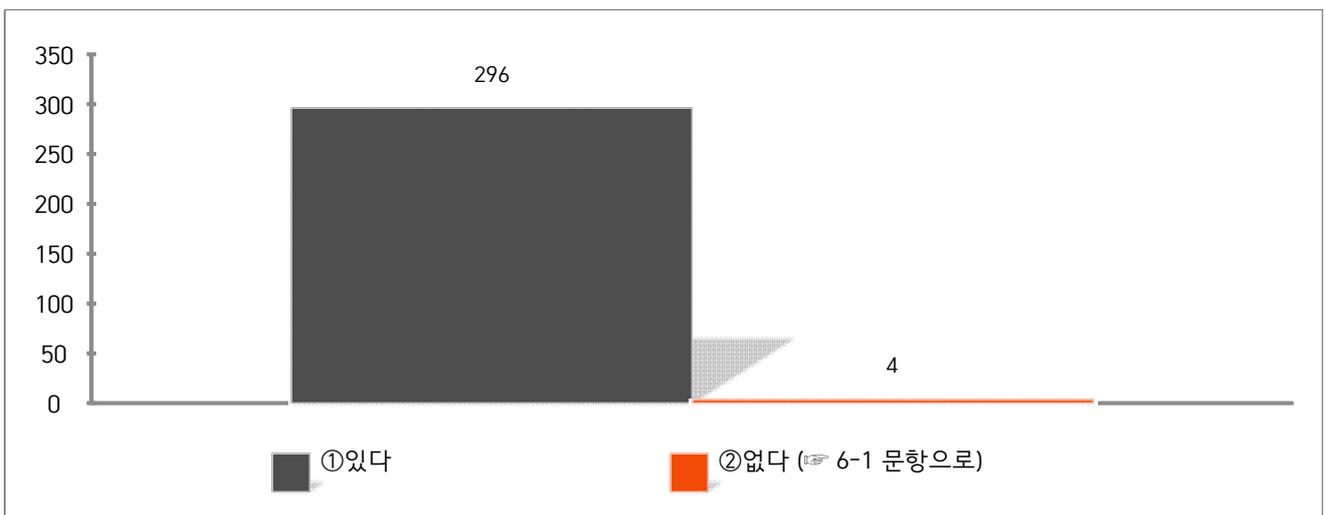
구분	①매우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인원수 (명)	300	0	0	0	0



○ 상담 만족도에 대하여 300명(100%)이 모두 매우만족하다고 응답하였음

6.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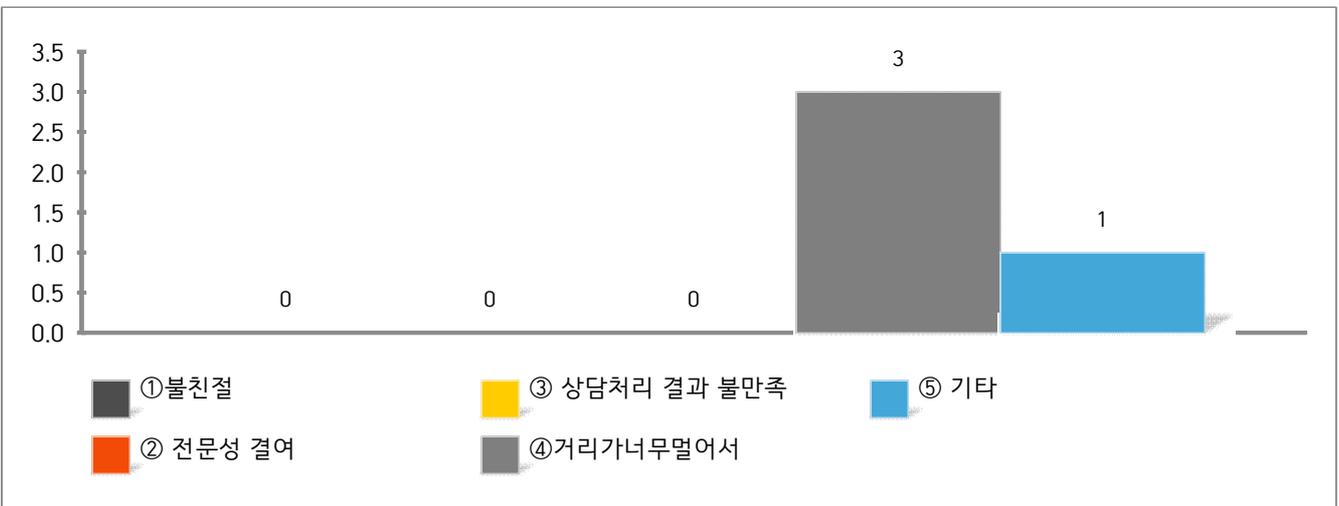
구분	①있다	②없다 (☞ 6-1 문항으로)
인원수(명)	296	4



○ 센터에 재방문 의사에 대하여 296명(98.6%)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4명(1.3%)이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응답 함

### 6-1.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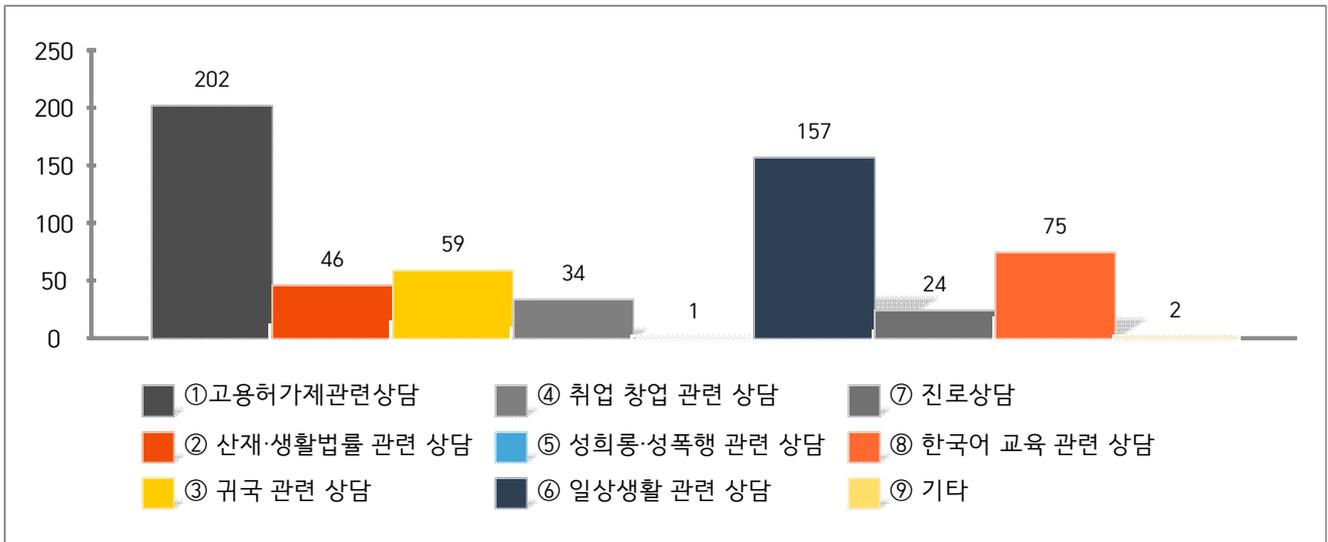
구분	① 불친절	② 전문성 결여	③ 상담처리 결과 불만족	④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⑤ 기타
인원수 (명)	0	0	0	3	1



○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3명, 궁금 사항이 해결되어서 1명으로 나타남

### 7. 귀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① 고용제상 허가관련상담	② 생애·생활 산재법관련상담	③ 귀국 관련상담	④ 취업·창업 관련상담	⑤ 통·행 성희롱·성폭 관련상담	⑥ 일·생활 관련상담	⑦ 진로 상담	⑧ 한국어 교육관련상담	⑨ 기타
1순위	162	18	20	12		59	3	24	2
2순위	40	28	39	22	1	98	21	51	0
전체	202	46	59	34	1	157	24	75	2



- 상담지원 받고 싶은 내용 1순위는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162명(54%), 일상생활 관련 상담 59명(19.6%), 한국어 교육 관련 상담 24명(8%), 귀국관련 상담 20명(6.6%), 산재·생활법률 관련 상담 18명(6%), 취업 창업 관련 상담 12명(4%), 진로상담 3명(1%), 기타 2명(0.6%) 순으로 나타 남.
- 근로자들이 받고 싶은 상담은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음
- 상담지원 받고 싶은 내용 2순위는 일상생활 관련 상담 98명(32.6%), 한국어 교육 관련 상담 51명(17%),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40명(13.3%), 귀국 관련 상담 39명(13%), 산재·생활법률 관련 상담 28명(9.3%), 취업 창업관련 상담 22명(7.3%), 진로상담 21명(7%), 성희롱·성폭행 관련 상담 1명(0.3%) 순으로 나타 남
- 상담 희망 2순위는 본국 휴가나 한국생활 중에 발생하는 일상생활 관련 상담 이 주를 이루고 있음

**8. 기타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H-2비자 일반취업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는데 온라인 교육 접속하는 방법, 기타 제출서류 등 애로
- H-2비자가 근무하는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의 사업주는 근로개시 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F-4비자 변경 애로
- E-9비자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

## IV. 설문 결과 총평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능력시험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만 실제 한국생활 중에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가 가장 많고, 특히 의료기관 방문 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센터에서 통역을 해주지만 많은 시간을 1명의 근로자를 위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하여 통역하는 것은 인력 문제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어를 배울 의사가 없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변경 후 구직기간 중에 사업장 알선을 받더라도 사업장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장의 업무, 급여 등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입사했다가 일이 힘들다고 다시 사업장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한국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시 3년, 재고용연장을 통해 1년10개월 총 4년 10개월 취업활동을 하고 출국해야 한다.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하거나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1순위로 임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변경을 하면 구직기간 동안에 최대 3개월 정도 임금이 없고,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귀국준비 없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외에 본국 재정착을 위해서 목표나 계획이 없는 것을 나타냈다.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행복한 귀국을 돕기 위해 진로상담을 실시하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도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진로상담을 통해 삶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보다 나은 한국생활과 한국 취업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근로자는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고충해소를 하는 것으로 보아 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